발간 등록 번호
11-B553921-00001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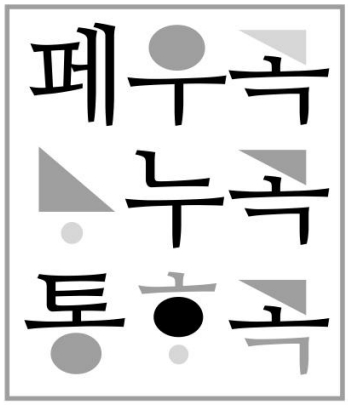
2021 제주어 포럼 '눌' 행사 기록

펴우곡 누곡 통ᄒᆞᆷ곡

제주학연구센터 편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2021 제주어 포럼놀



발간 등록 번호
11-B553921-000011-01

2021 제주어 포럼 '늘' 행사 기록

2021. 10. 6.~10. 8.

폐우곡 누곡 통곡

제주학연구센터 편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한락산만헌 제주어 '눌'
눌고정 헌ᄆᆞ음으로

제주어 포럼 '눌'은 제주어를 연구하고, 제주어로 여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제주어 관련 노력들을 공유하고,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8일 연 '제주어, 유네스코 소멸 위기 언어 분류 10년 제주어 포럼 및 기억 행사'에서 해마다 제주어 '눌'이라는 이름의 제주어 포럼 창립을 제안했는데 올 10월 우리 센터의 '제주어·제주학 주간'을 맞아 제주어 포럼 '눌'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올해는 11개 기관과 단체의 제주어 연구자·활동가가 모여 그간 진행한 제주어 관련 사업, 교육, 행사 등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제주어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곧 수립될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전에 없던 전염병으로 인해 제주어 포럼 '눌'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께 현장의 분위기를 최대한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페우곡, ᄂᆞ누곡, 통ᄒᆞ곡!》 행사 기록집을 냅니다. 이 기록집은 포럼의 행사 진행 순서에 따라 개회식, 제1부 '제주어로 ᄂᆞ누다', 제2부 '제주어로 통ᄒᆞ다', 부대 행사로 꾸민 '제주어 자료전–제주어를 페우다'의 현장의 소리를 글로 옮겨서 사진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제1부 ‘제주어로 ᄂᆞ누다’에선 제주어 교육 및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다섯 개 기관·단체에 소속된 다섯 분이 단체·기관 소개 및 관련 활동 사례를 발표해 주셨고, 제2부 ‘제주어로 통ᄒᆞ다’에선 제주어 교육·정책·언론·문화 활동을 하는 여덟 분이 제주어 관련 활동 내용과 성과, 제주어의 보전·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주어 자료전–제주어를 페우다’는 제주어 교육 및 조사·연구 기관, 제주어 문화 활동 단체, 제주어 관련 콘텐츠 제작을 도맡아하는 언론사 등 11개 기관과 단체에서 모아 준 제주어와 제주인의 삶과 관련한 활동상을 모아냈습니다.

제주어 포럼 기록집을 엮고 나니 부족하지만 제주어 ‘눌’을 대강이나마 ‘눈’ 것 같습니다. 제주어 포럼 ‘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가운데도 행사 진행과 기록집 정리에 애쓴 김미진 전문연구위원과 권미소 전문연구원, 그리고 묵묵히 힘을 모아 준 우리 센터 식구들 모두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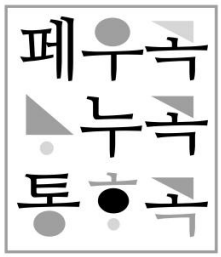
제주학연구센터는 앞으로도 한락산만헌 제주어 ‘눌’을 ‘누는’ 마음으로 제주어 연구자, 활동가, 언론사 관계자,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어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제주학연구센터장 김 순 자

차례

2021 제주어 포럼놀



1. 사업 개요 9

2. 제주어 포럼 '놀' 지상 중계 기록 13

2.1. 개회식 14

2.2. 제1부 제주어로 ᄂᆞ누다 31

2.3. 제2부 제주어로 통ᄒᆞ다 76

3. 제주어 자료전-'제주어를 페우다' 행사 기록 125

3.1. 참여 기관 및 전시 자료 소개 126

3.2. 사진으로 보는 제주어 자료전 137

4. 기타 행사 관련 기록 141

다글다글 과랑과랑 덩싹덩싹
덩싹덩싹 다글다글
무큰 어랑어랑
덩싹덩싹

1

사업 개요

사업명: 2021 제주어 포럼 '눌'

사업 기간: 2021. 7.~2021. 12. 3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제주어 연구자, 활동가들이 연구 내용과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제주어 포럼 '눌'을 정례화하여 학계, 문화·예술, 언론 등에서 연구 및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연구진

성명	소속 및 직급	역할
권미소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연구 책임자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공동 연구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공동 연구
오은주	제주학연구센터 위촉연구위원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위촉연구원	
현혜경	제주학연구센터 연구보조원	

사업 내용

1) 제주어 포럼 '눌'-ᄂᆞ누곡, 통ᄒᆞᆨ곡!

- 일시: 2021. 10. 6.(수), 14:00~17:00

• 장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

• 내용: 제1부 '제주어로 ᄂᆞ누다'–제주어 교육 및 문화 활동 사례 발표
제2부 '제주어로 통ᄒᆞ다'–제주어 활동 사례 공유 좌담회

• 행사 일정표

<table>
<tr><th>구분</th><th>시간</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4">개회식

사회: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td><td rowspan="3">14:00
~14:10</td><td>인사말</td><td>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td></tr>
<tr><td>격려사</td><td>김상협(제주연구원장)</td></tr>
<tr><td rowspan="2">축사</td><td>고춘화(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td></tr>
<tr><td>14:10
~14:20</td><td>홍보 영상</td><td>제주학연구센터</td></tr>
<tr><td rowspan="2">제주어 포럼
1부

진행: 권미소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td><td>14:20
~15:20</td><td>'제주어로
ᄂᆞ누다'</td><td>김정숙((사)제주어보전회 사무국장)
김보향((사)제주어연구소 이사)
배영환(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장)
이애리(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장)
강경환(사우스카니발 리더)</td></tr>
<tr><td>15:20
~15:40</td><td colspan="2">휴식</td></tr>
<tr><td>제주어 포럼
2부

좌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td><td>15:40
~17:00</td><td>'제주어로
통ᄒᆞ다'</td><td>오영희(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림(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김성용(귀일중학교장,
제주어교육연구회장)
양천호(KBS제주방송총국 PD)
김훈범(제주MBC PD)
현동협(KCTV제주방송 PD)
이완국(전 더럭분교장)
마이클 레이드맨(릴스틸프로덕션 대표)</td></tr>
</table>

2) 제주어 자료전–'제주어를 펴우다'

- 일시: 2021. 10. 6.(수)~10. 8.(금), 10:00~17:00
- 장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층 기획전시실
- 내용: 제주어 관련 교육·활동 중인 기관·단체·활동가의 자료 전시

- 이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했습니다.
- 제주어 포럼 영상은 유튜브(youtub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https://www.youtube.com/watch?v=Ai4f5raP3AA)'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 행사 기록집 2장의 내용은 행사 중계 영상을 그대로 한글로 전사하여 엮은 것으로,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의 말실수나 오류 등은 일부 수정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2

제주어 포럼 '눌' 지상 중계 기록

2.1. 개회식

사회: 김미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인사말: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격려사: 김상협(제주연구원장)

축사: 고춘화(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영희(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식



김미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지금부터 제주어 포럼 '눌'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제주어로 ᄂᆞ누곡, 제주어로 통ᄒᆞ곡!'이라는 구호 아래 제주어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제주어에 의한, 제주어를 위한 자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제주학연구센터의 김미진입니다. 식순에 따라 먼저 국민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20년 12월 8일, 제주어 유네스코 소멸 위기 언어 분류 10년 제주어 포럼 및 기억 행사에서 제주어 연구자·활동가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가능한 앞으로 매해 제주어 보전과 육성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써 제주어 포럼 '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사는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유튜브(Youtube) 제주학연구센터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현장에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서 몇 분의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영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고춘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주연구원 김상협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고재환 전 제주교육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최규일 전 제주대학교 교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강영봉 이사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전 이사장님 양전형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행사 제목인 '눌'은 단으로 묶은 곡식 등을 차곡차곡 쌓은 가리를 뜻하는 제주어입니다. 이 '눌'이라는 단어는 중세 국어 '누리'의 형태로 나타나며 '누리다'의 명사 형태입니다. 이렇게 제주어에서 중세 국어의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래아(ㆍ)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어 관련된 활동과 연구

들을 차곡차곡 눌어서 한락산만한 제주어 눌을 눌어 보게 하는 마음으로 제주어 포럼 제목을 '눌'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는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행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 센터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주어를 직허는 ᄆᆞ음덜을 ᄒᆞᆫ디 ᄂᆞ누곡, 통ᄒᆞ는 자리가 되길



김순자(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장)

작년 12월 8일입니다. '제주어 '눌'을 창설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1년이 가까웠습니다. 오늘 탐라문화제랑 같이 겹쳐서 많은 분들이 참석은 못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오젠덜 허난 막 속아수다예. 작년 제가 이 자리가 아닌 우리 다른 연구원에서 했었는데 그날 제줏말로 인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제주어 행사이니만큼 제주말로 골아보쿠다예.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우다. 코로나19 따문에 잘덜 지냄수겐 인사하는 게 막 미안한게마씸. 경헤도 어떵헙니까. 아멩 어려와도 ᄒᆞ룰ᄒᆞ룰 잘 보내사 하는 것이 우리가 헐 일 아닌가마씸?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관광위원회 오영희 부위원장님, 축사도 해주시고 오늘 토론회도 참석하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고춘화 국장님, 늘 응원을 아끼지 않는 저희 제주연구원의 김상협 원장님 막 고맙수다. 경ᄒᆞ고 오늘 우리 원로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아까 인사 소개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재환 교수님, 최규일 교수님 그리고 저희 은사님이신 강영봉 제주어연구소 이사장님도 함께하고 이수다. 정말 고맙수다.

제주학연구센터는 넘은해 제주어 연구자들이영 활동가들 모셩 제주어에 대하여 지피 생각하여 보는 시간을 ᄀᆞ져보겐 헹은에 유네스코가 제주어 소멸 위기 언어로 분류해 꼭 10년 되는 날 '제주어를 눌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시작허여수다. 그 자리에서 제주어 포럼 '눌'을 정례화허겐 허는 그 제안을 허여신디양, 벌써 1년이 가차와신게마씨.

올린 제주어 포럼을 어느제 허민 조으코 허단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한 제주어주관이영 그리고 우리 센터가 이제 정헌 제주학주간에 ᄒᆞ민 좋을 거 닮덴 허는 의견이 잇엉, 벳살 좋은 날 헴수다. 넘은해 제주어 연구자영 활동가들이영 ᄒᆞᆫ디 모영 제주어 보존을 위헌 일들을 ᄂᆞ누멍 해마다 이추룩헌 자리를 멘들민 좋겐 허는 약속을 허난 막 지꺼집디다. 소멸 위기 제주어를 직ᄒᆞ는 일도 ᄂᆞ누곡, 제주어를 직ᄒᆞ는 일

을 어떵허민 좋으코 허는 생각도 혼디 ᄂᆞ누는, 제주어를 더 잘 보존허젠 허는 거 닮지 안허우꽈예.

경허영은에 원래는 '제주어를 페우곡' 1층에 보면은 제주어 전시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걸 우리 '제주어를 페우곡', 그다음에 'ᄂᆞ누곡' 그리고 제주어로 소통하는 '통ᄒᆞ곡'이라는 주제 아래 제주어를 어떵 ᄀᆞ르쳐신디 지금까지 제주어를 어떵 알리젠 고생들 헤신지 그 속은 ᄆᆞ음들을 혼디 모다왕은에 앞으로 우리가 어떵헤야 할지를 ᄄᆞ시 의논하는 그런 자리가 오늘 자리입니다. 시간이 뒈믄 우리 제주어 행사 말앙도 우리 제주어 주간에 이제 내일 제주학 학술대회가 칼호텔에서 열립니다. 그 행사에도 혼디헤 주면 막 고마우쿠다. 제주어 관련 단체광 활동가덜, 교육활동 자료덜토 혼밧디 페와놔시난 주벤 사람들신디 잘 홍보헤영 하영덜 보게 소도리 좀 내줍서.

오늘 행사에 코로나19 따문에 오고정 허는 분들 하영 모시지 못허연 막 미안허우다. 경ᄒᆞ난 아무 제나 볼 수 잇게 유튜브렌 헌 걸로 볼 수 잇게 ᄒᆞ여시난, 요영헌 일도 더 널리 널리 홍보를 헤 주십서. 게나 제나 오늘 행사를 혼디 준비허여 준 참여 기관광 단체분덜 막 속아수다. 경ᄒᆞ고 오늘 행사를 꼼꼼히 준비해 준 우리 센터 김미진 전문연구위원, 권미소 전문연구원을 비롯한 우리 센터 식구들 하영 속아수다. 사랑합니다. 행사 때마다 고생만 허는 저희 센터 식구들신디 박수 혼번 보내주면 어떵허코마씨. 막 고맙수다예.

환절기에 건강덜 잘 챙기곡 느량 행복하길 두 손 모아 기원허쿠다. 경허고 내년 제주어 포럼에는 코로나19가 끗낭 사람들 하영 모셩은에 제주어 포럼을 신명나게 축제처럼 열 수 이시믄 막 좋으쿠다.

정말 고맙수다예.

언어는 존재의 집,
제주어는 제주 정체성의 집



김상협(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입니다.

먼저 2021년 제주어 '눌' 포럼에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오영희 의원님, 그리고 도정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을 총괄하고 계신 고춘화 국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춘화 국장님은 얼마 전 또 제주 포럼에서도 아주 저희 연구원과 함께 큰 역할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제주어를 위해서 연구하시고 활동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재환 교수님, 최규일 교수님, 강영봉 교수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연구원에서 정말로 자랑스럽고 뜻깊게 생각하는 센터가 바로 제주학연구센터

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 부친상을 겪었지만 우리 제주학 주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한, 노고를 아끼지 않은 김순자 센터장께 각별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저희 연구원에서 또 제주지하수센터 개원 1주년 비전 선포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주는 제주에 정말 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밖에서 온 사람 외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정말로 부러운 게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자연, 제주의 태양과 바람, 물 이게 이제는 지속 발전 시대에 하나의 중요한 자본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관광자원이 되고 또 이 자체가 새로운 경제적 자본으로 자본이라는 표현을 거북해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줄 압니다만 이 자연을 잘 가꾼다는 것 자체가 제주의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지하수 연구만큼은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세계적인 연구기관 연구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비전 선포가 있었습니다. 제주 지하수 정말 제주도에 제주의 보배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보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제주어라고 생각합니다. 어줍잖은 말씀이지만 '언어라는 것이 바로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존재가 놓여질 수 있는 곳. 즉 고향을 얘기하는 건데 고향이 있는 곳의 언어 그게 바로 제주어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미래

로 막 지금 여러 가지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만 제주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어의 제주인의 정체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학연구센터에서 가장 중시하는 분야가 바로 제주의 복원, 보전, 전승 그리고 발전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 언어로 퇴장되어가는 이 언어를 우리 현실 속의 언어로 되살리고 자리매김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라는 학자와 좀 교분이 있는데, 21세기는 그동안 2, 300년 동안은 국가 권력의 시대였다 할 수 있지만 21세기는 이제 로컬의 시대, 도시의 시대, 지방의 시대로 주역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제주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언어에는 우리가 뭐 소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또 새로운 어떤 기능 '제7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 자체에 힘이 있다는 거죠.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라는 거고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와 같은 분은 언어를 잘 다스리면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소설도 써온 책이 있습니다.

제가 고명하신 분 앞에서 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정말 제주어를 갖고 있는 제주, 너무 부럽고 멋집니다. 이건 앞으로 더 멋지게 발전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제주어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제 곧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됩니다. 오늘 이

행사가 제주도의 보전, 전승, 발전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함께 모색하고 의견이 수렴되는 소중한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랑스러운 제주학연구센터, 우리 제주연구원에서도 아마 내년쯤 되지 싶은데 제주학진흥원으로 독립해서 분가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라도 최선을 다해서 제주학연구센터의 활동, 역할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1

제주어는 제주인의 정체성, 기꺼이 지원할 터



고춘화(제주특별자치도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도청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이 행사장 오기 전에 1층 전시회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간 제주어 발전을 위해서 제주어 홍보나 대중화를 위해서 힘써주신 여러 기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제주학연구센터를 비롯해서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그리고 제주어교육연구회, 제주어보전회, 제주어연구소 그리고 교육청, 언론사, 방송사 그리고 노래로 제주를 알려주고 홍보해 주는 사우스카니발, 제라진소년소년합창단 그 많은 활동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간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제주어 포럼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순자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주어 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포럼, 의미 있는 자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 제주어가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소멸 위기 언어로 분류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제 제주어를 더 보존하고 이제 대중화하는 데 더 노력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도내의 기관 단체들이 같이 협력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제 제주학연구센터를 비롯해서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그런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주어가 제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제 그제, 저희 국에서 행사를 개최한 '세계 제주인 대회'가 있었는데, 제주에 뿌리를 두고 이제 제주가 아닌 곳에서 살고 있는 재외도민의 또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주인들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주의 그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타지역에서 지역학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높게 보고 있고 일부 대학에서는 지역학을 교과목으로 채택한 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학연구센터를 비롯해서 저희 제주도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제주어만이 아니라 이제 제주 그 역사나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제주학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이제 도내 이 많은 기관 단체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에서도 지원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기꺼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2

사라지는 언어가 아닌 살아나는 언어로 만들자



오영희(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주학의 전문성과 대중화를 앞장서서 이끌어주시는 김상협 제주연구원장님과 그다음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 전 지역을 뛰어다니시고 몸으로 발로 마음으로 애쓰시는 우리 고춘화 문화대외협력국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제주어 '눌'이 열리는 그 기쁨도 함께 나눕니다. 제주의 보존과 전승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 그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참여하여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식물에는 내면에 고유한 자신의 빛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랗게 익어가는 감귤도 그렇고 울긋불긋 단풍도 그렇습니다. 가을이 되면 큰 기온 차에 따라 따스하게 하고 또 스스로 제 빛깔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어도 고유의 빛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혼과 삶과 문화가 응축된 결정체가 바로 제주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어는 지난 2010년 유네스코가 사라지는 언어로, 5단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주어를 살리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일상에서 제주어로 사용해 주신다면 제주어는 다시 맛나고 빛깔 나는 언어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과 그다음 제주어 행사를 통해 제주어가 사라지는 언어가 아닌 살아나는 언어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회식 마무리

김미진: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1부 제주어로 ᄂᆞ누다, 2부 제주어로 통ᄒᆞ다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1부에서는 제주어 교육 활동과 문화 활동의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로 다섯 분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어를 매개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활동상과 애로사항 등을 들어보는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10월 8일까지 제주어 자료전 '제주어를 펴우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개의 제주어 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서 제주어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꼭 둘러보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부 행사 준비하는 동안에 제주학연구센터 홍보 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2011년 제주어 중점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 역사, 민속 등 제주학 연구를 위해 열심히 10년 동안 달려왔는데 그 역사를 잠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 제1부 제주어로 ᄂᆞ누다

- 제주어 교육 및 문화 활동 사례 발표

사회: 권미소(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발표: 김정숙((사)제주어보전회 사무국장)

김보향((사)제주어연구소 이사)

배영환(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장)

이애리(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장)

강경환(사우스카니발 리더)

제1부 진행



권미소(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안녕하십니까, 1부 사회를 맡은 제주학연구센터 권미소 전문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주어 포럼 '눌' 1부는 '제주어로 ᄂᆞ누다'입니다. 제주어 교육과 활동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제주어 교육과 문화 활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1부 행사에는 총 5개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주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의 제주어 교육 현황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것이고요. 이어 노래로 제주어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두 단체인 제주어로 노래하는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과 사우스카니발의 활동상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1부의 첫 번째 발표로 언제나 제주어 사용과 확산에 애써주시는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사무국장님이신 김정숙 선생님께서 제주어 선생 양성 과정 등 제주어보전회의 교육 활동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정숙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제주어를 보전하고 전승하려면 아이들이 제주어를 써야 할 거 닮아예

(사) 제주어보전회



김정숙((사)제주어보전회 사무국장)

반갑수다양.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사무국장 김정숙이우다. 여기 앞에 서난 ᄒᆞ꼼 떨렴수다양. 우리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는예.

(사)제주어보전회 연혁

· 2008. 1. 25. (사)제주어보전회 창립총회
· 2008.~2012. 1·2대 허성수 이사장
· 2013.~2016. 3·4대 문정수 이사장
· 2017.~2018. 5대 양전형 이사장
· 2019.~2020. 6대 김정민 이사장
· 2021.~현재 7대 이종실 이사장

먼저 연혁 ᄒᆞᆫ번 해놓고 허쿠다예. 2008년도에 창립을 헷수다. 그래서 지금 14년째 되는데, 이렇게 초대 허성수 이사장님을 시작해서

지금 7대까지 하고 잇고예.

주요 행사

· 2008. 12. 18. 제주어 확대 보급 방안 세미나 개최
· 2012. 8. 18. 환경 사랑 글모음 대회 개최
· 2015. 4. 15. 제주어보전회 'ᄆᆞᆫ울엉봉사단' 발대식
· 2015. 9. 19. 제주어 국제 학술 세미나 개최
· 2018. 6. 16. 제주어 표기법 토론회 개최
  - 주최·주관: 제주어보전회, 제주학연구센터
· 2018. 12. 8. 제주어 국제 학술대회 개최
  - 내용: 소멸위기의 언어 사례, 제주어보전 10년, 제주어 보전 향후 100년

그다음에 우리가 주요 행사는 교육도 하고 있지만은 매년 행사로 하는 이런 행사도 있습니다. 이런, 요거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보전회에서도 봉사단을 해 가지고 'ᄆᆞᆫ 울엉 봉사단'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행사 있을 때 제주어 홍보 부스 만들어 가지고 제주어 홍보하고 할려곡 'ᄆᆞᆫ 울엉 봉사단'을 만들엇수다예.

제주어 말하기 대회

· 2009. 12. 12.~2019. 10. 16.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읍·면·동 대항, 11회 개최

발표자가 보조 자료로 사용한 피피티(PPT)는 전사 자료 중간에 표로 만들어 함께 실었다. 현장에서 사용한 피피티(PPT)에는 동영상, 사진 등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다 싣지 못하고 자료를 부득이 일부 편집하여 제시하였음을 밝혀 둔다.

제주어 소식지 『덩드렁마께』 발행

· 2012. 4. 20.~현재

· 격월 발간, 현재 57호 발간

그래서 주요 사업으로는 처음 2009년부터 해서 저기 '제주어 골을락 대회'를 해 가지고 계속 ᄒᆞ여 오단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허지 못헷수다. 경헨 올해도 이제 허지 못할 거 닮고예. 그래서 11회까지 ᄒᆞ연 잇고예.

그다음에 지금 2012년 4월에 첫 발행을 해 가지고 제주어 소식지 『덩드렁마께』를 1년에 6개, 격월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요거는 안에는 전부 「제주어 표기법」에 맞춰서 제주어로 쓰는 제주어 홍보지를 지금 57호째 발간하고 잇수다.

제주어 왕중왕 뽑기 대회

· 2018. 10. 13.~ 2020. 11. 8. 진행

제주어 큰잔치(가문잔치)

· 2019. 10. 13. '우리 똘 영순이 시집 갔수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사업으로는 2008년부터 시작하는데 요게 '제주어 왕중왕 뽑기 대회'렌 헌 게 이신디예. 이거는 좀 특이한 게 아이들 학생, 학생을 포함한 가족 간으로 이렇게 모여 가지고 왕중왕을 뽑는 거라예. 이거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좀 될까 헤신디 부모님하고 학생으로 하니까 공부하면서 서로 말도 허고 하면서 참 아 이거는 참 잘

헤젓다 생각헤예. 그리고 또, 3대 할아버지까지 오면은 특별히 더 상금도 주고 해 가지고 하니까 의외로 3대 출현 집들도 할수록, 지금 3회째 했는데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우다.

그래서 요거는 작년 2019년도에 한번, '우리 뚤 영순이 시집 감수다' 요런 걸 해 가지고 제주도 전통 가문잔치 잇잖아예. 요거를 시연하는 행사를 한번 헤낫수다. 게서 이제 가문잔치허면 제일 뭐한 게 뭔고마씨. 돗궤기 석 점 아니예. 그래서 이제 국수에 돗궤기 석 점 해서 대접해 드리고.

책자 발간 사업

· 2018. 11. 『제주어 살리기 활동사 10년』 발간

· 2018. 12. 『혼디 배우는 제주어 1』(초급 교재) 발간

제주어 생활 수기 공모

· 2019.~2020. 제주어 생활 수기 공모 진행 및 수상 작품집 발간

요거는 우리가 『제주어 살리기 활동사 10년』 해 가지고 요 활동사 책을 발간했고 처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강사를 가다 보니까 교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애서 처음으로 『제주어 초급 교재 혼디 배우는 제주어』렌 헌 거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업할 때 이거 활용도 하고 잇고예. 사업으로는 이렇고, 그리고 또 이젠 2019년부터 제주어 생활 수기 해 가지고 지금 2회, 3회째 올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

· 2010. 6. 23.~2020. 6. 2.
  - 제주어 선생 육성 교육 과정(11기, 633명 수료)
· 2014. 7. 28.~2019. 12.
  - 제주어의 이해와 표현 전문교육 과정(6기, 163명 수료)
· 2018. 2. 9. ~ 2021. 2. 8.
  - 제주어 강사 역량 강화 교육(62명 수료)

지금 이제부터는 교육 사업을 하는 건데예. 2010년 2008년도에 창립해 가지고 2010년부터 이제 제주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이제 제대로 교육을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2010년 1기로 시작해서 '제주어 선생 육성 교육과정'이라는 거를 시작헤신디예. 이때는 낮에 하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낮에 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엇어수다. 게서 4학기 때부터 저녁에 헤신디예. 여기 수업 내용으론 표기법, 설화, 제주어 노래 이런 간단한 그런 거 뭐 농어촌 문화 이런 거를 배우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11기, 올해 12기째 지금 하고 잇고예. 11기까지 633명이 수료헷수다.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장소도 뭐 하고 해 가지고 그래도 방역수칙은 잘 지키멍 교육은 헴수다만은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제주어 선생 육성 교육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제주어를 더 한번 내가 더 해서 뭔가를 해 보겠다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제주어를 더 깊이 알아보겠다 하는 사람 하에서 '제주어 전문교육 과정'이라고 요것도 이제 14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하고 이신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요거를 안 했습니다게. 올해는 지금 할 거곡 지금 '선생 육성 교육 과정' 11월에 끝나면 할 거고예. 6기까지 163명이 수료헷수다. 요기는 이제 조금 더 깊게 나가니까 전 체계 언어라든가 표기법도 좀 깊숙하게 지나가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제주어도 골아보곡 써보고 하는 시간도 만들고 잇수다.

그다음에 지금 앞에 두 개의 전문 과정 끝나고 그다음에, 아니 '선생 육성 과정' 끝나고 전문 과정이 끝나면은 요게 이제 내가 이제 강사를 한번 해 보겠다 해서 하는 사람들을 한해서 '제주어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을 20시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문 선생 육성 과정'은 48시간 하고, 전문 과정은 36시간 해서 이거 48시간, 36시간을 수료한 사람들은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을 20시간을 이수하면은 강사증을 주는데 지금까지 62명이 수료해 있습니다.

찾아가는 제주어 교실

· 2015.~2016.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 2014.~현재 제주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 2020년 10개 학교 26학급
  -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도내 도서관 등 방문
· 2017.~현재 초등방문 제주어 교육
  - 2020년 29개 학교 253학급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선생을 육성하기 위한 강사 그런 교육을 했다 하면은 이제부터는 그 선생 육성 과정을 통허영 배출된 강사들을 파견을 하는 거라예. '찾아가는 제주어 교실'

로 해 가지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로 해 가지고. 요거는 야외에서, 풀이름은 제주어로 허믄은 어떤 거고 낭 이름은 무슨 '복당낭'이니 '얼루레비낭'이니 검질덜토 제주의 거가 잇수게예. 그런 것도 배우멍 숲속에서 아이들하고 놀면서 또 전통 놀이도 우리 어린 때는 영 놀아낫저 하면서 그런 거를 배우면서 하니까 요거, 아이들은 야외 나가니까 참 좋아하더라고예. 요거 했었고.

이거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예. '청소년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중학교나 청소년 수련관, 지역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이렇게 우리 와서 제주어 교육 해 주십시오 하면 이렇게 가서 하는 건데. 지금 작년에는 중학교만 10개 학급 이렇게 10개 학교 26학급 했는데 중학교는 어떤 시간에 하면은 자유학기제 시간에 헤예. 그러면 보통 2시간씩 17회 아니면 3시간씩 17회 좀 장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중학교 같은 거는 이렇게 이거 수업 해 가지고 책 자료집도 멘들어 놓고 영 헙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중학교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고 다시 또 자유학기제 때 수업 허연마씨.

그다음에 요거는 초등학교, 우리 강사들을 이제 하면은 이제 저가 가장 제주어보전회 생각에도 하겠지만은 제주어를 할려면은 보전하고 전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은 아이들이 제주어를 써야 할 거 닮아예. 아이들이 써야 되고 집이서 어멍 아방들이 써야 되고. 영 하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초등학교에 제주어 수업하게 헤 줍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여디 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해서 이제 2017년부터 초등학교를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기 시

작헷수다예. 경헹 허는데 작년에는 29개 학교 253학급이 헤신디예. 우리가 제주어를 헐 때는 초등학교 창체 시간(창의적 체험 활동)에 보통 많이 허는디. 허면은 제주어로 이렇게 동화를 제주어로 바꿔서 해 주고 노래도 제주어로 기존에 있는 노래를 제주어로 바꿔서 해 주고 하면서 놀이도 하고 전래놀이도 할 때 무사 우리 어릴 때 놀아난 거 잇수게. "살레 아래 중이가 흔 마리 들엇저." 이런 노래. 베뛸락. 베뛸락을 허멍 이런 노래도 베와 주곡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은 너미 그런 놀이를 안 하다가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또 그 노래가 너무 그런. 저기 "똑똑 누구십니까?"도 제주어로 하면, "잇수과? 누게우꽈?" 허믄은 뭐 "신발 벗어 들어 옵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그런 말에 대한 너무 재미있어하고 헤예.

그래서 초등학교는 수업을 하는데 저희들은 표기법 어린아이들한테는 뭐 표기법이 필요가 없지 않으우꽈예. 게서 학교에서는 저가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제주말을 하영 쓰자. 아이들이 먼저 귀가, 귀가 터지고 입이 터져야 제주어가 써질 거 아니우꽈예. 경헹 가믄 인사부터 "편안헙데강." 아니면 "복삭 속앗수다양." 인사로. 그러면 "멩심허영 잘 갑서양." 경헤예.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오면은 딱 수업허러 다음에 가면 "복삭 속앗수다양." 이렇게 인사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제주어 너무 어려워요, 꼭 외국어 같아요." 해서 아 외국어 선생님 온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는 지금 올해도 참 많이예 신청헤수다. 점점 이제 늘어가고 학교에서 원하는 데가 많고예. 게서 다 되신게마씨.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강사를 해 가지고 그 선생 육성 과정, 전문 과정, 강사 역량 강화를 해 가지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학교에도 찾아가고 또 동네 노인 복지회관, 복지센터에서 원하면 찾아가고 해서 하는데.

저희가 강사님들한테 가장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제주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발음예. 발음을 저는 안 되면 막 연습하렌 헴수다. 왜냐, 저기 자기는 가서 학교에 가서 'ᄆᆞᆯ' 이것도 못하면서 요거는이 '말'이 아니고 'ᄆᆞᆯ이야.' 하면서 자기는 발음도 못하고 하면은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연습하면 된다. 또 육지 사람이 와서 발음을 연습해서 된 사람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는 발음도 중시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또 이왕이면은 막 제주어를 많이 해 가지곡 귀가 트이게 헤주렌예. 경 부탁 강사님들한테 부탁허고 잇수다. 이걸로 끗인게마씨.

고맙수다예.

마을을 찾아가 그 지역의 문화와 제주어를 조사하고 교육

(사) 제주어연구소



김보향((사)제주어연구소 이사)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의 김보향입니다.

저희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의 제주어 교육 활동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의 누리집 첫 화면입니다. 저희 누리집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하는 활동, 계속해서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 사항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는 2016년 8월 5일,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라는 강령을 내세우며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어 교육 사업인 경우는요, 저희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사)제주어연구소 소개

· 제주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결과 축적
· 국제적 교류를 통하여 제주어를 보전하고 육성

(사)제주어연구소 하는 일

· 제주어 조사 및 연구
· 제주어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 제주어 시민 강좌 개최
· 제주어 총서 및 기관지 《제주어》 발간
· 제주어 구술자료 구축
· 제주어 관련 학술회의 개최
· 세계 언어재단 및 연구기관과 교류
· 그 밖의 제주어 보전과 발전에 부합하는 일

저희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에서는 조사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자료 개발 및 그리고 기관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술 자료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사업을 하면서도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제주어 시민 강좌입니다.

저희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가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까 모든 운영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어 교육 활동

· 2017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보조금 지원으로 제주어 교육 사업
  - 이주민을 위한 제주어 학교
  -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교육
· 2017~2021년 매년 2개의 '제주어 교육 사업' 실시

다행히 교육 사업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보조금, 제주어 교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조금으로 2017년도서부터 교육을 시작해 왔습니다. 2017년도인 경우에는 '이주민을 위한 제주어 학교'를 열었고요. 그리고 '제주 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학교'로 두 개의 교육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두 개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했던 장면들입니다.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사진은 2017년도 '제주 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학교-구술 강독회'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제주어 교육'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휘에서부터 간단한 인사 표현 위주의 수업이었습니다. 저희가 교재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직접 쓰신 교재로 만들어서 그걸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교재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이 없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책으로 아직 발간해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곧 쉽게 배울 수 있는 일반인들이, 이주민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인 경우에서부터는 '제주어 마을 활성화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을 위한 제주어 교육'의 일환으로 저희 제주어연구소에서는 특화한 사업으로 제주어 마을을 찾아가서 그 지역의 문화를 조사하고 교육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문화로 배우는 제주어'의 작년 교육 사진입니다.

2021년도입니다. 올해인 경우에도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교육을 개설했는데요. 우선은 '제주 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교육'이 있고요. '이주민, 다문화, 일반인을 위한 제주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교육

· 강의 목적
  - 제주문화 속에 녹아 있는 제주어
  - 제주어를 통해 들여다보는 제주의 전통문화 탐색
· 강의 구성
  -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 제주어 구술 강독회
  - 현장에서 배우는 제주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 강좌는요, '제주 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교육'입니다. 제주어연구소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문화와 언어의 관계입니다. 문화와 언어의 관계인데 문화와 언어는 별개의 요소가 아닙니다. 지금 각 지역어가 소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문화에 대한 요소들을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어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정체성, 삶을 드러내는 요소입니다. 언어를 잘 보존하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문화의 변화로 지금의 생활환경은 우리네 어머님, 우리

네 할머님이 살았던 시대의 생활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활이 달라지면서 그 생활을 가리키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하는 부엌을 제주에서는 예전에 뭐라고 했었죠? 네, 고맙습니다. '정지'라고 했었지요. 지금의 화장실을 예전에는 '통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데가 놓여 있는 지금의 화장실을 '통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궁이가 아닌 전기나 가스로 밥을 하고 있는 부엌을 저희가 '정지'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어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잘 보존하고 구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주 문화 속에는 오롯이 제주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어를 통해 가지고 제주의 전통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주 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어, 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교육'은 다시 세 강좌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선은 '제주 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제주어 구술 강독회', '현장에서 배우는 제주어'로 나뉘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주 문화로 배우는 제주어인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술 강독회, '제주어 구술 강독회'는 다음 주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배우는 제주어인 경우에도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교육

· 강좌명: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 일시: 7월 1일~7월 29일(매주 화·목요일)
· 대상: 제주도민 20명, 대면 강좌 실시
· 강의 내용: 제주어의 이해, 의·식·주로 배우는 제주어, 바다일로 배우는 제주어 등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끝났고요. 올해인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인원을 조금 제한하였습니다. 대면 강좌로 실시했는데요.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선은 전반적인 제주어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나서 의생활에 관련된, 그리고 음식으로 배우는, 그리고 세시풍속, 바다일, 농사일, 굿, 주생활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인 우리 삶에 관련된 내용들을 묶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담당했었던 바다일로 배우는 제주어인 경우에는 바다일의 주체가 되는 '좀녀', '보제기'로 나누고, 그들이 하는 일, 바다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채취하는지, 채취한 해산물들이 제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채취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그것 자체가 제주어와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루었고요.

이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 상반기에 있었던 '제주 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강좌' 모습입니다.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교육
· 강좌명: 제주어 구술 강독회

· 일시: 10월 12일~11월 9일(매주 화·목요일)
· 대상: 제주도민 20명, 대면 강좌 실시
· 강의 내용: 표선면 토산1리 어르신들의 구술(마을 이야기, 음식, 농사 이야기 등)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부터 실시하게 되는 구술 강독회인 경우에는요. 저희가 지금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제주어 조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을 틀어드리고 그 영상에서 말씀하시는 걸 직접 귀로 듣고 저희가 다시 전사 작업을 해 가지고 그걸 전부 문자화하였거든요. 자료집 한 걸 읽으면서 꼼꼼히, 꼼꼼히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11월 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고요. 올해인 경우에는 표선면 토산리 어르신들의 구술 내용을 가지고 이런 형태의 강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을 이야기, 아까 이야기했던 문화로 배우는 제주어와 연관 지어서요, 주제를 잡았습니다. 옷, 바다일, 농사, 통과의례, 민간요법 등의 주제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우리가 그전에 실시했었던 2019년 8월에 영평동에서 굿을 조사하는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선생님으로 나와 계십니다. 나와 계시고요. 앞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살아온 이야기에 대해서 두 분 어르신들께 여쭙고 그거 제주어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녹화하고 녹음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저희는 그걸 일일이 전사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전사한 자료를 문자화해서 보면서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면

서 제주어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올해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7월에 조사를 나갔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건 구술 강독회. 실제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영상을 띄워놓고 앞에서 자료집을 보면서 영상을 듣고 다시 자료를 확인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구술 강독회'입니다.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교육

· 강좌명: 현장에서 배우는 제주어

· 일시: 11월 예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로 배우는 제주어'에서는요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현장에서 배우는 제주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배우는 제주어'는 말 그대로 현장을, 저희가 마을을,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주제를 정해서 음식이면 음식, 아니면 목축 관련이면 목축 관련해서 주제를 정해서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요. 이건 2018년도에 저희가 선흘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서는 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냥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어르신들을 통해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 마치고 나서요. 오름을 둘러보며 곶자왈을 탐방하면서 우연히 만난 말 타고 계신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활동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이번 다음 주에 강좌를 개설했으면서도 많은 분들께 오십시오라고 안내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20명으로 제한해 가지고 강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좌 안내에 대한 내용은 저희 제주어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가지고 상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제주어연구소가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문화관광 전문가 양성의 기반 조성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배영환(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장 배영환입니다.

앞에서 다른 여러 단체, 기관에서 제주어 교육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의 분들이 너무 풍성하게 잘해 주셔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빈약한 것 같긴 한데, 저희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교육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수 및 심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심화 교육 과정에 제주어 해설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2018. 11. 21. 신설)

이 문화관광해설사는 제주어 조례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교육', 제주어 교육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2019년부터 저희가 3년째 이제 올해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뭐 청소년 교육도 하고 일반인 여러 교육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은 여기 도지사는 해설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제주어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조례에 있다고 그래서 아마 이게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례에 반영해서 아마 이렇게 이런 교육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이 왜 제주도 교육이 필요한지 이 부분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 계획서를 낼 때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아마 이런 거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주어 교육의 필요성

-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주어는 설명의 수단이기보다는 주요 **설명의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역사·문화적 맥락에서의 이해도 제고가 필요
- 언어는 **역사·문화·전통 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역사와 문화를 통한 제주어 교육이 매우 효율적임
- **제주학 전문가**가 전공 분야에서 집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제주어 교육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제주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 필요

어쨌든 해설사분들이 제주어도 필요하고, 제주에 대한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교육 그래서 제주어 플러스 역사문화까지 강의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둬서 애초에 이 교육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어와 제주학 전문가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적인 교육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의 목표

· 제주어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심화
· 제주의 역사·문화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제주어 교육
· 답사를 통한 역사·문화·전통 분야 관광콘텐츠의 현장성 강화

네, 그래서 거창하긴 한데 제주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심화 그리고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래서 4·3과 말 문화, 목축문화죠. 또 신화라든지 이렇게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제주어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에게 제주에 대한 이해를 좀 심화시키려고 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체계

· 교육 주체
  - 국어문화원: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주관
  - 전문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강연과 답사
  - 자치단체: 사업비 지원
· 교육 내용
  - 주제 강연: 제주어 및 제주 문화 관련 18회 강연
  - 현장 답사: 분야별 총 4회

전체적인 추진 체계는 국어문화원이 주관하고 자치단체에서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런 추진 체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해설사의 역량을 제주어와 제주의 문화 역사에 대한 이해를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주의 콘텐츠를 교육함으로써 해설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 사업에도 뭔가 좀 연계시키려고 하는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와 국어문화원 간의 협력 관계를 이제 구축해서 제주문화관광 전문가 양성에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제주에 또 이분들이 좀 더 현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사뿐만 아니라 제주어 교육에도 혹시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방법으로 기대 효과를 예상했었습니다.

3년간 성과인데요, 처음에는 이 수치를 보듯이 처음에 참여자가 한 7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40여 명 정도 되고 올해 현재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직 이제나저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려워서 이제 정말 다음 주부터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줌(zoom)과 그리고 온라인 교과, 비대면과 대면 교육을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0여 명 정도 되는데 최종 한 30여 명이고요. 작년부터 좀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참여가 처음에는

뭐 엄청 많이 왔었는데요. 작년부터 좀 두 번째 해부터 참여자가 적어서 문호를 좀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 그 해설사분들에게 다 일단 열어놓은 상태고요. 올해도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그 관심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저희들도 걱정하고는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성과와 내용(2019)

· 대상: 제주 지역 문화관광해설사 70여 명
· 구성: 강연 11회, 특강 4회, 답사 4회
  - 강연: 제주어 총론, 제주어 표기법, 속담을 통해 배우는 제주어 등
  - 특강: 제주인, 바다 밖의 넓은 세상을 보다 등
  - 답사·구술: 방목문화를 통해 배우는 제주어 등

전체적으로 1차년도 2019년도에는 제주어의 음운, 문법, 어휘 그리고 현장에서 배우는 답사. 답사를 통해서 배우는 이런 형식으로 구성됐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성과와 내용(2020)

· 대상: 제주 지역 문화관광해설사 40여 명
· 내용: 강연 13회, 특강 5회, 답사 3회
  - 특강: 제주어의 생태언어학적 접근 등
  - 강연: 제주어 문법, 제주어 음운, 역사 자료 속의 제주어 등
  - 답사/구술: 굿판에서 배우는 제주어 등

문화관광해설사 추가 강의(2020)

· 내용: 강연 8회, 답사 2회
  - 강연: 제주어와 해녀 문화, 제주어 특강 등
  - 답사/체험: 제주 돌문화 등

그리고 2020년에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육지에 계신 교수님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이렇게 현장에서 배운 굿판이라든지 양태장이라든지 '불미'에서 배우는 제주어 이런 것도 마련했고요. 작년에는 1차 첫 강의가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돼서 좀 예산이 많이 남아서 나중에 추가 강의도 이렇게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2021 진행)

· 대상: 제주 지역 문화관광해설사 30여 명
· 내용: 강연 10회, 특강 5회, 답사 3회
  - 강연: 제주어 음운, 제주방언의 일반성과 특수성, 세시풍속과 제주어 등
  - 답사/구술: 미정

올해는 대체로 이런 건데요.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전부 다 현장 강의를 대폭 줄이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강의를 예년보다는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12일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날 해서 저희는 '화목한 제주어', 이거를 몇 년째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화목한 제주어', 강좌명이 '화목한 제주어'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제주어 교육을 주관하는 거점 기관 선정하여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내용을 개발해야 함
· 문화관광해설사의 관심도 향상을 위한 수료증 발급
· 제주 지역 내 전문해설사 등 제주어 교육 대상자 확대와 홍보가 필요함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런 데서 예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일회성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뭔가 체계적인 교육이 되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런 거를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저희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거를 이렇게 연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3년 정도 해서 초급반이나 중급반 아니, 두 개나 이렇게 나눠서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해서 이 코스를, 코스를 수료를 하게 되면 일정한 자격증을 줘서. 그 자격증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아마 내년이나 이때쯤부터는 이걸 조금 이렇게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생각인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주어 교육 수료증 제도(안)

· 기초반
제주어 표기법과 음운, 문법 등 체계적 교육을 통한 제주어의 기본 원리를 파악
· 심화반
역사·문화·전통 속의 다양한 제주어를 배움으로써 역사·문화적 맥락에서의 이해 필요

· **실전반**
제주어 글쓰기와 해설 등 실질적인 제주어 사용 경험을 통한 현장성 강화

그래서 수료증 발급과 기초반, 심화반, 실전반인데 이거 두 개 반으로 할지 3개 반으로 하면 또 예산도 있고. 대체로 두 개 반 정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수료증을 줘서 그분들이 사실 그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교육 현장에서 제주어 교육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요와 또 저희는 또 그거에 수요자에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더 체계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 '고맙수다'라 그러는데 '고맙습니다'라고 나오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라진 꼬마 예술가들, 제주 문화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노력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이애리(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어로 노래하는 제라진합창단 단장 이애리입니다.

저 위에 올려 써 있는 것처럼 제주의 문화와 또 역사 이야기를 다른 언어가 아닌 제주어로만 노래하는 유일한 합창단이라고 우기면서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합창단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주어로 활동하시는 많은 예술가들이 있는데 저희 제라진, 우리 꼬마 예술가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까지 저희 활동했던 이야기보다는 저희가 작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아이들이 연습하고 연주하고 했던 활동들을 함께 보면서 이번 코로나 시대의 예술 활동에 대한 특별히 제주어로 활동하는 아이들의 모습들

을 보면서 예술가들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생) 네, 좀 전에 봤던 영상은 저희 이제 연습실에서 연습하던 영상인데요. 아까 그 꼬마 아이가 했던 우쿠렐레(Ukulele)라는 악기로 연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2015년 창단해서 쭉 예술공간 이아(IAa)에서 정말 코로나 전까지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연습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작년 그러니까 2019년 12월부터죠, 2020년 상반기 1, 2월에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저희가 연습 공간에서 연습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원 제한도 있고, 그때는 코로나가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면 합창 연습이라든지 모임이라는 것들이 다 금지가 되었습니다, 공간에서 하는. 그래서 저희도 한두 달 정도는 아이들이 방학을 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았는데요. 저희가 다시 연습을 시작한 건 2020년 4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 공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다가 저기 저 더큰내일센터라는 그 건물이 있는 연북로에 옥상에서 토요일마다 한 시부터 세 시까지 연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비가 올 때는 저렇게 계단 밑에서 연습했고요. 해가 났을 때는 저렇게 야외 공간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저희가 연습을 하는 이유는 코로난데 쉴 수도 있지, 좀 쉬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연습을 쉬지 않고 제주어로 노래할 수 있는 또 여러 무대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연습을 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작년 이제 여름 연습하는 모습인데요, 이건 마스트클래스(MasterClass)예요. 마스트클래스에서 저희가 제주어로 노래하는 가사는 제주어에 활동하시는 시인님들, 동시를 쓰시는 시인들의 가사, 시에 저희가 창작으로 노래를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어로 전해 내려오는 전래동요, 민요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노동요를 악보화해서 그 노래들을 또 아이들이 함께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다섯 살부터 지금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는데요. 올해까지 7기 해서 7년차, 1년에 한 기수씩 뽑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저렇게 야외 산지천에서 연습하고 있고요. 지금은 김만덕 기념관을 열어주셔서 거기에서 이제 편안하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포럼 영상인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영상 재생) 네. 이렇게 올해 제주포럼까지 아이들이 영상을 찍어서 오프라인에서는 강혜명 씨가 노래를 하고 저희는 온라인으로. 저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한 아이당 한 열 번은 핸드폰으로 집에서 반주 없이 가사 외워서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경험들이 이 팬더믹(Pandemic) 상황에서의 저희 제라진 아이들이 꾸준히 연습을 하고 또 모여서 고민을 했던 그런 연주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영상은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을 읽고 마지막 영상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주민입니다. 저는 제주 온 지 10년 됐고요, 가족들을 따라 처음에 제주에 내려왔다가 제주어라

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어를 알게 되면서 제주 문화를 공부하게 되었고요, 제주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제주도는 정말 그 한라산에서 축구공을 차면 금방 바다에 빠진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거짓일까, 이것을 밝히러 가자. 이런 수준의 제주도를 알고 있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이주해 오면서 제주의 문화와 또 제주의 아픔 그리고 정말 제주가 지켜야 할 언어를 알게 되어서 제 오십 평생에 아마 제주 이주가 제일 잘한 일이 아닐까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과 제주어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제주어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이 제주 땅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 평생에 아마 제일 잘한 일일 거라고 제가 나중에 눈 감을 때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할 내용은 항상 무대에서 연주가 익숙한 제가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 해서 너무나도 긴장되고 하지만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요. 또 억양에서 오는 이렇게 이질감이 있을 수 있는 이 경상도 언어를 제가 비록 경상도 언어로 얘기하지만 제주말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 저의 발표 자료를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팬더믹과 꼬마 예술가들의 아우성'입니다.

우리들 일상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다. 예술 현장도 마찬가지다. 관객의 따뜻한 눈빛과 박수로 버텨온 공연판도 하나, 둘 무너지고 있다. 예술,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발버둥 쳐 보지만 힘에 부칠 때가 많다. 바이러스가 점령한 세상에서 예술가들은 사회적

고통을 안으로 껴안고 푹 사귀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새로운 소통을 고민하지만 이 또한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랜선(LAN線)이라는 낯선 공연 환경에서 서로의 숨결을 느끼기란 여간 힘들지 않기 때문이다. 공연 예술이란 관객과 배우가 함께 울고 웃으며 꿈틀대는 무대를 만들어 온 예술 분야이기 때문이다. 공연 관람객이 코로나 이전 대비 9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로나19로 공연 예술 분야 피해 현황 조사를 보면 2020년 한 해 코로나19로 휴업이나 폐업을 결정한 예술 관련 기관은 45%나 되고 있다고 한다. 공연 예술계에 종사하는 단체나 예술가들의 생존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그들에게 무대는 땀과 열정이 솟구치는 치열한 삶의 터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공연 예술계 또한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Platform)으로 관객 접촉 공간을 다양하게 확장하려는 시도를 잇따르고 있다.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나 조성진 같은 스타 음악가들도 하우스 콘서트(House Concert)를 생중계로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더라도 지금의 확장된 공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예술 소통 방식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무대 공연과 함께 온라인 공연에서의 소통도 항시 우리들 곁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내가 몸담고 있는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은 만 7세부터 13세의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어로 노래 부르지만 나는 이 아이들을

꼬마 예술가라 부른다. 꼬마 예술가들이지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전과 사뭇 다른 공연을 체험하고 있고, 새로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으며 또한 좌절도 맛보고 있다.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은 지난달 막을 내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폐막식에서 그 어려운 환경을 경험해 보았다. 무대에는 소프라노 단 한 명이 서 있었지만 무대 뒤 화면에는 합창단 한 명씩 영상이 떠오르며 한 소절씩, 한 소절씩, 번갈아 노래가 이어졌다. 이내 전 단원들과 소프라노의 목소리가 폐막식장과 온라인에 울려 퍼졌다. 아이들에겐 첫 경험이었다. 온오프라인이라는 물리적 경계뿐 아니라 세대 간 경계까지 가뿐히 넘는 시간이었다. 꼬마 예술가들이 힘들었던 여정을 스스로 치유하고 소리로 녹여냄으로써 아이들은 서로 감동하였다.

꼬마 예술가들은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만든 세상은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관객층을 새롭게 개척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고 믿는다. 이 새로운 숙제 앞에서 제라진은 '제주어 제라진 티비(TV)' 유튜브(Youtube) 채널을 개국하였다. 제주어와 제주의 문화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소개하고 제라진 꼬마 예술가들은 제주의 문화를 더욱 다양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좌절과 아픔을 맛볼지라도 새로운 희망 찾기는 계속될

것이다. 희망과 숙제를 모두 끌어안고 폭 쌓이는 과정은 쓰라린 아픔이 연속이지만 이 또한 스스로 치유하며 성장하는 길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믿고 주저하지 않는다. 팬더믹(Pandemic)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예술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우리 꼬마 예술가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

네, 이 발표 자료는 이번 제가 신문에 기고한 기고문을 이제 저희 합창단 발표로 읽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꼬마 예술가들, 저희 꼬마 예술가들은 제주어로 활동하는 예술가입니다. 꼭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커 가서 제주의 리더로서 또 제주의 문화 예술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심방,
제주 문화로 세계 정복 꿈꿔

사우스카니발



강경환(사우스카니발 리더)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스카니발에서 리더와 보컬을 맡고 있는 강경환입니다.

우선 오늘 앞선 강연자분들 선생님들의 강연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제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서 작품의 진정성을 담아 보자라는 의미로 제주어를 평상시에도 사용하고 부모님과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주어를 가사로 차용을 했고 제주 문화를 음악에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품에서 제주어와 제주 문화에 관련돼서 미비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질타도 많이 받았었고 근데 이 모든 것 또한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계속해서 발전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우선 13년째 되는 밴드고요, 제주에서 밴드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대 인원 밴드로 어떤 도립이라든가 시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립단체가 이렇게 10년 이상 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정도고요. 그게 또 제주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떤 무한 경쟁을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 낙천적이고 이런 따뜻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음악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2008년도에 의기투합을 해서 팀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지금 올해 13년째가 됐는데 하다 보니까 제주 최초 헬로 루키(HELLO ROOKIE)에 선정이 되고 제주 최초 케이 루키(K-ROOKIES)에 선정이 되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로컬 밴드들을 다 통틀어서도 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Pentaport Music Festival) 메인스테이지(MainStage)의 로컬 밴드로서 선 거는 또 처음이었고요. 진짜 자랑 같네요. 그리고 2018년도에 있었던 모스크바에서 16개국이 모여서 밴드 경연대회를 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저희만 출전을 했고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해서 공교롭게도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의환향을 해서 돌아왔는데 도지사 선거가 3일 남을 때라서 언론에 묻히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나름 제주어를 갖고 활동을 하면서 그런 성과들을 얻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정규 1집 '사우스카니발'(2013)

1. 몬딱 도르라
2. 노꼬메오름
3. 수눌음 요
4. 와리지 마랑
5. 바당이 나꺼여
6. 성산블루스
7. 혼저 옵서예
8. 고라봐야
9. 타지마할 선과장
10. 느영나영

저희가 처음에 제주어로 2012년도에 '몬딱 도르라'라는 노래를 앨범에 실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주어를 앨범에 싣는다는 이런 어떤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장난 같아 보이기도 했고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래서 감수를 저희 할머니한테 했었거든요, 가사의 감수를. 그래서 근데 틀린 게 많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2013년도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집시 킹스(Gipsy Kings)라는 프랑스 국적 밴드인데 히스패닉(Hispanic) 계열들이 넘어와서 국어라는 생활형 뮤지션, 생계형 뮤지션들을 사례를 봤어요. 사례를 봤더니 이들은 밤볼레오(Bamboléo)라는 노래에 집시들만 쓰는 그들만의 언어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토속적인 느낌을 담아냈습니다. 처음에 집시 킹스(Gipsy Kings)도 주위에서 많이들 만류를 했

는데 불구하고 강력하게 고집을 내세워서 앨범을 발매했다가 200만 장 이상 팔리는 쾌거를 거두는 걸 보고 그래 진정성이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희도 용기를 내서 '몬딱 도르라'라는 노래를 실은 앨범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몬딱 도르라' 가사 중

두렁청이 어드레 가젠 헴시냐
곱들락 허게 촐려입어그네 이드레 와그네
느영나영 모다들어그네 터졍 도르게
빙삭허게 몬딱 베리난 보뎌 감시녜
도르라 조들지 마랑 도르라 몬딱 도르라
도르라 조들지 마랑 도르라 몬딱 도르라
(중략)

(음악 재생) 네, 이런 노래구요. 가사를 보시면 뜻이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감수했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고요. 이렇게 앨범의 전체 어떤 제주의 정서를 담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 앨범을 발매를 할 때 사실 지방에 있는 로컬 밴드가 돈이 없어서 어떻게 앨범을 발매를 할 수가 없었는데, 케이 루키즈(K-ROOKIES)에서 진행했던 전국 신인 밴드를 뽑는데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이 돼서 지원금을 받게 돼서 앨범을 발매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좀 놀랐어요. '동네 심방 내무렴저'라는 말이 있듯이 이 앨범을 내기 전과 낸 후에도 사우스카니발은 계속해서 사우스카

니발이었는데, 그전에는 예총(예총문화단체총연합회), 민예총(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도청(제주특별자치도청), 시청(제주시청) 아무 데서도 이거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없다가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오디션에서 1등을 하니까 갑자기 막 제주의 자랑이 돼 있더라고요.

해녀 헌정 앨범 '좀녀 어멍'(2014)
1. 좀녀(feat. 링다)
2. 어멍(feat. 하하, 킹콩, 링다)

그래서 저희는 용기를 내서 그다음에 또 '좀녀'라는 앨범을 만들었어요.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법환리 해녀이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해녀가 유네스코에서 그 '아마(あま)'로 등록되느냐, '해녀(海女)'로 등록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저희는 어떤 그런 지원을 받아서 이거를 홍보한 게 아니고 이 앨범을 만들고 자비를 들여서 쿠바, 중국, 베트남 이런 등지에 돌아다니면서 '좀녀'는 노 하폰(No Japón) 일본 것이 아니다, '좀녀'는 한국의 제주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명감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는 공공외교라고 생각해요. 문화를 바꾸는 데 가장 큰 힘은 지원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고 우리 지금 개개인들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행동, 작은 행동이라도 하나라도 하는 게 어떤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저희 때문은 아니겠지만 해녀가 유네스코에 선정이 됐죠.

그래서 더 자신감을 갖고 해외에 막 나가게 됐어요. 해외 나가게 됐는데 안 먹히더라고요. 쿠바에서 가서 자신 있게 저희의 노래들을 연주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나가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양음악(洋音樂)이 그들의 음악이고 우리는 동양의 변방 국가일 뿐이더라구요. 그 중에 지도를 펴면 표시도 안 되는 제주도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아주 정말 약소국이구나. 약소한 곳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됐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느끼게 됐어요. 우리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맞는 거다.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다라고 그냥 무턱대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스며들어서 너희들 것도 정말 대단하고 좋은데, 우리 거는 너희들과 다른 이런 느낌과 이런 또 다른 색다른 맛이 있어라는 다름을 알려줘야지. 너희 것보다 우리 거가 더 우세해라는 어떤 그런 우위를 얘기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쿠바에 있는 어떤 큰 공연장 준비되어 있는 그런 극장이 아니라 길거리 혹은 뮤지션들이 모여 있는 곳 무턱대고 달려들어서 배우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러면서 그들의 리듬도 배우기도 하고 그들의 음악을 배우면서 우리 음악도 알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느낀 거는 쿠바는 우리나라보다는 어떤 생활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형 뮤지션들이 많은데 그들은 진정성이 우리보다 더 많이 들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서 우리가 왜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 음악

이 먹히지가 않았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돼서.

그래, 나는 해녀처럼 물질을 해 본 적도 없고 제주어를 그렇게 100% 다 알고 있지 않는데 제주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스피커 역할만 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결여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굿판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15일 동안, 한달 동안 굿을 하는 곳은 제주도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고유의 정말 내세울 만한 문화인데 아무도 모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뭔가 언어는 정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음악과 가사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서를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프리카의 브드게임이라는 이 프랑스 밴드인데요. 그 콩고 출신 혈통이에요. 근데 이들의 음악을 보면은 연주자들은 전부 다 아프리카 사람, 저 프랑스 사람들이지만 보컬은 특이하게 콩고 혈통인데, 콩고에서 의식을 할 때 주술 행위를 할 때 하는 리듬과 가사를 그대로 양음악에 차용을 해서 아프로비트(Afrobeat)라는 어떤 그런 음악을 하고 있었구요. 그리고 펠라 쿠티(Fela Kuti)라는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 뭐 농사가 잘 되면 신께 감사하다라는 어떤 그런 종교의식 행위들에 썼던 리듬과 음악을 그대로 차용해서 세계에 알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위시즈(Wishes)'

· 제주 '칠머리당굿'을 차용한 앨범

· 굿 악기인 '징, 북, 설쇠, 요령' 등을 녹음에 사용함.

그러면 우리도 우리만의 고유한 칠머리당굿이라는 정말 독특한 이런 행위가 있는데 이거를 음악에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위시즈(Wishes)라는 아프로비트(Afrobeat) 리듬과 나이지리아 리듬과 그리고 제주에 굿에서 쓰이는 어떤 그런 행위들 그리고 악기도 특히나 제주 심방들이 쓰는 악기들을 차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성물이라고 아무한테나 팔아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서 무릎 꿇고 배우기까지 하고 저희가 정말 좋은 뜻에서 사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위시즈(Wishes)라는 노래를 만들었고요.

정규 2집 '동네심방'(2018)

1. 스토커
2. Cha Cha Man
3. Paradise
4. Carnival
5. 달
6. 아꼬와
7. 동네심방
8. Dancing for rain
9. Take off
10. 해녀의 노래

그리고 '동네심방 내무렴저'라는 그 저는 그 속담을 되게 좋아해서요, '동네심방'이라는 곡을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거 역시도 아프로비트(Afrobeat)의 저희 제주의 정서를 담았는데요. 가사 역시도 다 제주어고 근데 이 아프로비트의 특징은 그냥 음악

이 다양, 이렇게 현란하지가 않아요. 코드(chord)가 한 코드밖에 없어요. 원 코드(one chord)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해녀의 노래 보면은 '우리는 제주도에 가이 없는 해녀들' 이것도 한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그런 우리 음악들, 뱃노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코드가 하나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한번 살려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원 코드로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외 활동

· 러시아,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하와이 등에서 제주어와 제주 문화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역할을 함.

시간이 많으면 이 음악들을 좀 다 들려드리면서 설명하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정서와 언어를 장착을 하고 10년 정도 준비를 하고 다시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뭐 삿포로도 갔었고요, 베트남도 갔었고, 세부, 모스크바, 하와이 등등 돌아다니면서 우리 거가 우월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너희들 것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들만의 독창력인 것이 있다. 그거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주의 문화의 우월성이 아니라 제주 문화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도록 계속해서 세계를 돌아다닐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 정복을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우스카니발이었습니다.

2.3. 제2부 제주어로 통ᄒᆞ다

- 제주어 활동 사례 공유 좌담회

좌장: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참여: 오영희(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림(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김성용(귀일중학교장, 제주어교육연구회장)

양천호(KBS제주방송총국 PD)

김훈범(제주MBC PD)

현동협(KCTV제주방송 PD)

이완국(전 더럭분교장)

마이클 레이드맨(릴스틸프로덕션 대표)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오늘 2부 제주어 포럼 '제주어로 통ᄒᆞ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좌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에서 여러분들 이제 1부를 보면서 제주어 교육 활동 그리고 제주어 문화 활동을 하는 것들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제주어의 미래는 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시간을 짤막짤막 진행을 하는 게 제게 주어진 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말도 생략을 하고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하면 토론자는 누굽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우리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육성으로 직접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깐 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네 분씩 앉아 있는데요. 왼쪽부터 이제 소개, 자기소개 겸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짤막하게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부위원장님, 오영희 의원님께서 마이크를 이어 받겠습니다.

오영희(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영희입니다. 제주어를 사랑하고 제주어를 앞으로 전승, 계승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이 자리에 오늘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순자: 왼쪽으로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이완국(전 더럭분교장)

여기 개인인 경우는 자기소개를 하라 그래서 자기 소개허겠습니다. 저 개인입니다. 이완국입니다. 저, 제주도의 시골에서 많이 자라서 표준어를 몰라서 제주 사투리만 곧다 보니까 이제 가끔 불러줘서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훈범(제주MBC PD)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엠비시(MBC)에서 온 김훈범 피디(PD)라고 하고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연출을 맡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연출했지만 제주어 관련해서는 2015년에 '제주어의 지꺼진 반란'이라고 여기 강영봉 교수님도 계신데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바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 차차차', '제주어 전승 프로젝트 속암수다' 등 농촌 기반형 예능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지금은 '와랑와랑 티브이(TV)'라고 제주어로 진행하는 매거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동네 말장시'라고 네 명의 말장시들이 나와 가지고 한 해에 제주의 이슈나 그런 트렌드 등을 좀 쉽게 풀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창 제작하고 있습니다. 참가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현동협(KCTV제주방송 PD)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케이시티브이(KCTV) 제주방송의 현동협 피디(PD)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청소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주와 관련된 거는 매년 이제 '제주어 창작 동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8년째 이렇게 '제주어 창작 동요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좀 제주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 예, 그러면 제 오른쪽으로 이제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이영림(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제주어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이영림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계가 사랑하는 제주어 흔디 배우곡 흔디 쓰멍 직허게마씀'을 비전으로 해서 우리 도내 학교에서 교육 과정 연계 제주어 교육 활성화와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제주어 사용 기회를 높이는 데, 이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주어 보전·전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용(귀일중학교장·제주어교육연구회장)

네, 반갑습니다. 제주어교육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현재 귀일중학교 교장으로 있습니다. 제주어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길은 제주어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천호(KBS제주방송총국 PD)

반갑습니다. 케이비에스(KBS)에서 '콘텐츠 안테나'라는 프로그램을,

금요일 방송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걸 제작하고 있는 양천호입니다. 그밖에 저희 제작하고 있는 제주어 드라마라든지 '보물섬'이라든지 케이비에스(KBS)에서 제작하고 있는 다양한 제주어 관련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 레이드맨(릴스틸프로덕션 대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릴스틸 프로덕션 대표 마이클 레이드맨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제주에 온 지 이제 13년 되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요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우리 피디(PD)님들께서 덕분에 저기 한국말도 배우고 제주어도 호끔씩 호끔씩 배우고 그리고 제주어 조금씩 쓰면서 여기 저기 출연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 말한 것처럼 육지에서 산 적이 없어 가지고 저도 좀 토박이처럼, 제주 토박이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어는 사라지는 언어 말고 살아 있는 언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어를 사용한 콘텐츠가 경쟁력이 있는 시대

김순자: 네. 여덟 분의 인사를 다 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제 나오신 분을 간략히 정리를 하면 우리 제주도의회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나왔고요. 제주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그리고 제주어 방송을 하는 이제 케이비에스(KBS), 엠비시(MBC), 케이시티브이(KCTV) 세 개 분과에서 나왔고 이제 교육을 또 하는 제주도교육연구회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제주어 교육을 실제적으로 아이들과 하는 우리 이완국 선생님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여덟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눈이 가는, 귀가 가는 분이 이제 우리 마이클 레이드맨 (웃음) 제가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제줏말로 하면은 잘 될 거 닮은디예. 그래서 우리 제주어가 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리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언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 국적도 아니라 외국 국적인 우리 레이드맨 씨가 제주어를 살아 있는 언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떵 허믄 좋고예?

마이클 레이드맨: 네. 엄청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까 저기 1부 보니까 모두가 진짜 훌륭히 할 일 많이 진행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단 하나만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우리 지금 학교에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는 (제주어



를) 많이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방송국도 가요제 그런 거 연구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요. 그 어릴 때부터 특히 유치원부터 많이 약간 인사부터 '펜안허지예?' 그런 간단한 제주어 좀 배우고 있다면서요.

우리 그때 어릴 때 우리 학부모님들 또 집에서 제주 간단한 거라도 쓸 수 있으면 엄청 좋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얼마 정도 가르쳐도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저처럼 20~30대, 뭐 40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저 30대분들이 제주어 진짜 호끔밖에 모르우다예.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도 제주어 많이 들어야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김순자: 집에서부터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오른쪽으로 했으니까 왼쪽으로 또 개인이 제주어 교육을 하는, 우리 이완국 선생님은 제주어만 안덴 허니까예, 제주어, 어린이들을 만나면서 왜 제주어 교육을 하는지 다른 소질도 많을 텐데 하는 생각도 언뜻 드네요.

이완국: 왜 제주 교육을 하는지는. 왕 제주어 교육허렌 헤 부난 허는 게 맞고. 그래서 다니면서 느끼는 게 아, ᄀᆞ치 제주에 사는데 제주어를 교육해야만 이게 되는가 이런 의심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하면서 보람도.

저는 이제 제주어 교육하면서 막 방대하게 하지 않고 우리 영어 공부 해보셨잖아요. 영어 공부할 때 맨날 비동사 공부허당 책 뚜껑 더꺼 붑니께예. 그다음 거 안 넘어가고. 이게 동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은 제주어 할 때 우리 ᄀᆞᆫ는 말에 예를 들면 '가다'라는 걸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만이라도 ᄒᆞᆫ 번 집에서 ᄀᆞᆯ아 보게 해 가지고 지난 거는 "너 어디 간?", "어디 가난?" 이렇게 하고 먹어난 거는 "뭐 먹언?" 이렇게 해 보고 지금 먹는 건 "뭐 먹으멘?", "어디 가멘?" 허고 갈 디는 "어디 갈 거?", "어디 가젠?" 이런 거 하면서 아이들이 절대 안 잊어먹는 말이 하나 있어요.

'어디 가멘'은 제가 가는 데마다 "야, 어디 가멘 선생님 완." 허면서 막 오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우스갯소리 하나를, 옛날 그게 짧게 짧게 말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아이들한테 전해주는데 절대 안 까먹더라고요. 옛날 슈퍼맨하고 베트맨하고 제주도 3학년 아이가 노는

데 놀다가 슈퍼맨이 바쁘다고 갈 일 있다고 "슈퍼맨!" 허면서 놀아가고 그다음에 베트맨도 "야, 아가야 나 바쁘다. 나도 갈게." 헤서 "베트맨!"에서 날아가니까 제주도 아이도 심심하니까 그냥 갈 순 없고 "어디 가멘?" 허멍 쫓아갔다고 해서 요렇게 이런. 뭔가 쉽게 올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접근을 해 보려고. 제주도의 아이들이 어떤 동사만이라도 과거, 현재, 미래 요것만이라도 앞에 있는 단어는 못 써도 그것만이라도 집에서 어머님께 여기서 부모님들한테는 약간 높임말로 '-광?', '-꽝?', '헴수광?' 이렇게 붙여 가지고 해 보도록 이렇게 좀 노력까지 노력을 허고 있습니다.

김순자: 예.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너무 딱딱한 분위기. 역시 이제 두 분이서 분위기를 풀어준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예상 질문을 좀 다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질문들이 좀 딱딱해서 분위기를 좀 바꿔봤고요.

우리 오늘은 활동가 연구자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주어 활동하면서 어려움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우리 언론하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주어 전공자가 아닌데 제주어 방송을 만들려니까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우리 아, 왼쪽인가요? 우리 김훈범 선생님이 아까 가장 먼저 해줬었죠, 제주 엠비시(MBC)에.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거였나요?

김훈범: 저희는 방송하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항의 전화를 받는 거죠. (웃음) 그러니까 주로 들어오는 항의 전화가 틀렸다, 소리가 틀렸다 우리 동네는 그렇게 표현 안 한다. 거 어느 동네에서 쓰는 말이냐? 이런 전화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사에 전화하시는 분들은 고집이 되게 세십니다. 그래서 수정할 때까지 지켜 보겠다라는 말을 남기시고 끊어서 전화가 올 때마다 상당히 두렵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물론 게으른 탓도 있겠지만 물론 표기법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고 그런 걸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욕심은 뭐냐 하면 제일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제주어에 대한 허용의 폭이. 그러니까 이게 표기를 지키다 보면 이게 되게 직관적이지 않은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고 표기가 좀 따로 노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시청자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고집을 피우는 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네마다 다릅니다. 다르니까,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옮기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죠. 그 어느 제주어냐? 그게. 근데 도망가려는 저희 전략은 뭐냐 하면 어느 분이 감수를 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긴 하는데 학자분들마다 또 이게 또 기준이 다르고, 동네마다 다르고 어차피 이럴 거면 또 지역어라는 게 결국 이게 격식어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이라는 게 과연 필요할까 이런 짧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용의 폭이 좀 넓었으면 또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 대한 표현을 좀 관

대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공영방송이라는 엠비시(MBC)가 줏대 없이 「제주어 표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받는다면 그것도 감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기도 다른 피디(PD)님도 계시겠지만은 정말 피디(PD)별로 되게 생각이 다를 거고, 지향하는 바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조금 애로사항이 조금이 아니고,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순자: 네, 우리 왼쪽. 또 가겠습니다. 우리 '제주어 창작 동요제' 8년 동안 이끌어 오신 우리 선생님은.

현동협: 예, 저도 뭐 아까 옆에 피디(PD)님도 얘기하셨지만 제일 애로사항은 항의 전화죠. 근데 제가 이제 뭐 방송국에서 이제 1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제주어 틀렸다고 항의 전화 오면 그냥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듣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제 근데 30대 초반에 이제 '삼춘 어디 감수과?'를 하는데 이게 오미연 씨가 동네 삼춘들하고 제주어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자막이 이제 '매미'를 '재열'이라고 했는데. 전화가 오죠, 이제 회사로. 넌 머리에 똥이 들었냐고. '자열'이라고 한다고 막. 무슨 막 그런 되게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방송 '삼춘 어디 감수과?' 나가는 시간은 제가 일단 사무실 밖으로 이제 빠져나갑니다. 일단 전화를 안 받을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래서 저도 제주를 보면서 '어, 이

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왜 항의를 하시지?'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 게 이제 무조건 맞다 저기 거는 아니다. 너는 틀린 제주어를 방송국에서 쓰면 제주어를 망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신입 피디(PD)니까 좀 무서웠죠. 그런 전화가 그 당시에 이제 적응이 안 돼서 그냥 피하고 제가 피하면 다른 직원들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다시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약간 많이 알려져서 제주어가 조금씩은 다르게 쓸 수도 있구나라는 게 많이 알려져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없



어졌고요. 저는 동요제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애들이 좀 더 쉬운 제주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많이 좀 느끼면서 배우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애로사항이 제 어린이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이거는 제주어로 이런 표현인데 이거 도저히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서 제주어를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애들이 입에 익지 않으니까 노래도 제주어로 부르는 게 어렵고, 또 제주어가 어렵다는 인식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이들이 쉽게 제주어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저도 전문가들한테 좀 조언을 듣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순자: 예. 고맙습니다. 언어라는 게 소통인데 어렵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주어 전공자로서 우리가 쉬운 제주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양천호 피디(PD)님도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양천호: 예, 지금 두 분께서 다 시청자 항의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요. 저도 기억에 남는 항의가 있는데 저는 '우영팟'이라는 시사 토크 프로그램을 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제주도 '우영밧'을 차용해 가지고 팟캐스트(Podcast)하고 합쳐서 우영팟이라고 만들었던 건데 고산 쪽이신가, 신창 쪽에서 계시는 시청자분이 한 분 전화를 주

셔서 우리 동네에서 우영밧으로 쓰는데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잘못된 걸 프로그램 제목으로 쓰면 되느냐 항의를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하셔서 잘 설득은 해서 이해는 시켜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의 항의는 비일비재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시청자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런 제주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사투리라고 그러죠. 이런 지역의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에서는 약간 좀 꺼려하는 금기의 영역이라고도 되어 있었거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이런 방통위 같은 심의 기관에서도 그런 거를 권장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어려움들은 많이 조금 해소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전국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는 드라마 같은 경우의 반응을 보더라도 일단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신선하다는 반응이 많은데 다른 전라도 사투리나 경상도 사투리를 방송으로 했을 때 듣는 항의들에 비해서는 제주도는 아직 그런 편견 자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를 예전에 방송했을 때는 식모들이 쓰는 말인데 뭐 이렇게 항의가 있다거나 경상도 사투리를 했을 때는 뭐 깡패들 쓰는 말 같은 거를 이렇게 쓰느냐 항의가 있었지만 오히려 제주도는 신선하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콘텐츠를 만들 때 제주어를 사용하는 것이 경쟁력으로도 요새는 작용할 수 있구나 해서 저희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함께 만들 수 있는 전문가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 케이비에스(KBS)는 한 10년 정도 제주어 드라마 작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오고 있는데 제주어로 극본을 쓸 수 있는 작가가 지금 저희 방송국에서도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매년 같은, 내용은 바꿔가지만 그런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을 좀 많이 양성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좋은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필요

김순자: 전문가 양성 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제주어라는 게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가끔은 다르다는 이유를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서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계속 들어오는 질문이거든요. 왜 우리 동네에서는 '솔레기'렌 쓰는데 '오토미'라고 쓰느냐 가령 이렇게 해서 이제 항의를 하면서 이제 맞다, 틀렸다 하는데 언어라는 거, 문화라는 거는 아까 사우스카니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각 나라를 예를 들면서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언어에서도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표기의 문제는 이제 표기법을 완전히 다 준수해라 요런 것보다는 표기가 잘못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지만 약간 다른 건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보긴 합니다. 우리 방송 현장에서 어려움들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제주도청에서는 제주어 조례에 따라서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5년에 한번 세워서 이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2차, 3차. 1차는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2차, 3차를 해서 올해가 마지막 해입

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년까지죠. 내년에 다시 4차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정책 문제는 또 직접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해 줬던 이런 것들도 4차 기본 계획안에는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어 관련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우리 정책을 하는 우리 도의회,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오영희 의원님한테 이제 여쭙겠는데 '4차 발전 기본 계획'에 제주어 발전 계획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든 의회 차원이라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희: 2010년 12월에 제주어 유네스코에 의해서 소멸 위기 언어로 분류된 상황에서 2012년 '2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차 그 계획이 되어 있고, 2022년도에 이제 '4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이 이제 수립될 예정인데요. 제주어란 그 의미를 사용하는 사용 수를, 이제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말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이제 더 많은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어로 말할 수 있는 환경 제공과 그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제주어를 이제 노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교육 기반 조성과 그다음에 프로그램 강화, 그다음에 제주어의 대중화를 위한 사용 환경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이 더 발전적인 방안이 이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정책을 통해서

도민들과 함께 제주어의 방향 기본 계획 수립하는 데 좀 애쓰고 또 노력할려고 합니다.

김순자: 예, 우리 든든한 의원님이 있어서 이제 4차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3차 기본 계획의 가장 중점 사항이 우리 도민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이야기했던 게 제주어의 대중화 그리고 제주어 교육을 이제 제주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또 제주어 교육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학사님, 제주어 교육 담당하시는데 한 말씀하시죠.

이영림: 지금 최근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제주어 교육 실태조사 연구'를 보면서 이제 현장에서는 또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제주어 교육 활성화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자료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는 일회성에 그친다, 그다음에 외부 강사를 활용하는 수업에 그친다니까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외부 강사를 활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부 강사라고 하면 우리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나 제주대 국어문화원 그리고 우리 이완국 선생님 같은 제주어 활동가들이 학교 현장을 많이 찾아가서 제주어 교육을 아주 열심히 해 주시는데요, 사실 그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현장 교원들이 직접 제



주어를 가르칠 수 있어야 아이들을 생활 지도하면서 제주어를 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도 제주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조례에서 가장 추구하고 있는 의사소통 중심 제주어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에서 다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이 있고요. 우리 2018년, 2018년에 '제주 이해 교육과정'이라는 걸 도교육청 용역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제주의 말과 글 제주어 영역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지속성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 지금 바

로 이 주간이 제주어 주간이기도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제주어 교육 주간이기도 합니다, 탐라 문화제 이 기간이. 그래서 이 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육과정에 녹여내어서 국가 수준의 성취 기준과 제주의 교육 과정을 녹여낸 그런 제주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장 지금 교사들을 보면 저도 제주어에 능숙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젊은 교사들의 제주어 구사 능력이 일단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주에도 타시도 출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문했던 학교에서는 6개 학년 중에 단 한 분만 제주 선생님이시고요. 제주어 선생님, 저 제주 출신 선생님이 아니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주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못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배우려는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주도 교육정책을 다 만들면서 그걸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제주학연구센터 같은 그런 전문 연구 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제주어 관련한 교육을 꾸준히 시킨다면 그래도 저희들이 하는 제주어 연수와 그리고 이제 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제주도 교육 프로그램들이 우리 현장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제주어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김순자: 3차 기본 계획의 주요 사업으로 꼽았던 게 제주어 교육과정

개발 제주어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요런 게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력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 되는지도 모르기는 하지만 정말로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제주어 교육 과정 개발이라든가 교재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성, 교사 양성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제 유튜브(youtube)로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도의회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전하면서.

우리 제주어 교육과 관련해서 교사들이 중심이 된 제주어교육연구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성용 선생님이 요런 제주어 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선생님들끼리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어떤 게 어렵고 앞으로 해야 될 게 어떤 일인지 그 역할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용: 어쨌든 우리 제주어교육연구회에서는 제주어 교육 자료 개발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09년부터 제주어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어교육연구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 개발이기 때문에 자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저가 이제 가만히 보면서 문제점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일선에서는 우리가 교육 자료로 개발한 것을 일선 학교에 보내면 이 자료들을 재구성해서 학교장 의지

에 따라서 창의적 체험 활동 또는 그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틈새 교육 시간을 이용해서 가르치는 학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어 교육에 상당히 학교장들이 신경을 쓰는 학교가 많은데 저의 생각은 언어라는 것은 학생들이 많이 접촉을 해야 언어가 많이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 상 한, 각 학년 한 시간 정도는 정규 교육과정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지금까지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정책적인 의지를 좀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1학년 학생들이 지금 자유 학년제입니다. 자유 학년제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자유 학기제였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자유 학년제가 돼 가지고 1학년 학생들은 시험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유 학년 프로그램에 보면은 주제 선택 활동이 있는데 그 주제 선택 활동을 좀 활용해서 제주어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또 바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자료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많이 개발이 돼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 연구회에서 활동들을 못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중고등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많은데 이 자료들을 가지고 가르칠 선생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사님도 계십니다마는 가르칠 어떤 선생님들한테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제주어 교육 직무 연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어 담당 교사들한테 좀 인센티브라도 좀 줘 가지고

좀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학사님이 말했습니다마는 요즘 젊은 선생님들 보면 전국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이 젊은 선생님들이 육지에서 오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선생님들한테 좀 인센티브를 주면서라도 제주어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이중 언어 생활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 학교에서는 여러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표준어를 사용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가정에서는 밥상 머리에서만이라도 제주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가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라헌 제주어로 소통하다 보면 생기가 돌고 재미도 생겨

김순자: 예, 고맙습니다. 지금은 어떤 바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제주어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주어 교육을 하고 제주어로 활동하면서 보람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클 것 같은데. 우리 레이드맨 선생님 제주어 방송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제주어 하면서 얻은 성과 보람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이클 레이드맨: 네, 잠깐만요. 그런 방송이나 출연 때문에 솔직히 오늘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는 처음에 2008년에 왔을 때 그때는 한국말 한 마디도 몰랐고요. 그래서 저 한국말도 배우면서 제주어도 조금, 조금씩 배웠고요.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주도에서 다니면서 여기 저기 그 사람들이랑 제주어로 말할 수 있어서 더 편하고 사람들이랑, 상대방이랑 더 가까이 될 수 있고, 서로 그런 존경도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초까지 계속 구제주, 신제주 저기서 살았는데요. 최근에 1월달에 한경면 판포리로 이사갔습니다. 완전 촌 중에서 촌입니다. 촌엣아이 다 됏수다예, 이제. 촌쪽에서는 이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마을 할망, 하르방이랑 제주어로 쪼끔, 쪼끔씩 골아도 뭔가 좀 더 제주도 같

습니다. 예, 그런 그런 그런 (제주어를 사용할 때) 친절한 느낌도 많이 생기고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 같은 저 그냥 그런 사람끼리 그런 인연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더 하면은 저기 멀리 판포리에서도 특히 여름에는 육지에서 내려온 관광객 엄청 많이 와 가지고요. 그래서 무슨 보기만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좀 인기가 있는 식당에서만 말고요, 그냥 저기서는 그때 마을 안에 카페 이런 것도 생기고 육지, 서울 사람도 엄청 많이 다니고요. 그래서 멀리 이런 좀 오래된 오리지널 제주, 이런 조그마한 마을에서도 점점 표준화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거의 파도처럼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할망, 할아버지들 뭔가 편하게 새로운 사람이랑 제주어 자기가 원하는 언어를 좀 말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예.

김순자: 아, 굉장히 우리한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쉽게 다가가고 마음을 통했던 한경면 판포리 널개. 사람들 그곳 그 작은 마을에까지 이제 육지에서 와서 이제 카페를 낸다든가 어떤 뭐를 만들어서 하는데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쵸? 마을 주민들은 당신들의 영역에서 늘 제줏말로 얘기를 하고 정서적인 교감이 있었는데 카페가 생기면서 교감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가 불편해지는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가 제주어를 지키고 교육해야 하는 이유들이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 레이드맨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아까 방송에서 계속 지적, 표기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제주어 방송을 만들면서 보람도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양천호 피디(PD)님부터 이제 얘기 해 주시죠.

양천호: 저희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또 물론 저희 피디(PD)들 중에서도 제주가 고향인 친구들도 있지만 순환을 온다거나 타 지역에서 온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같이 배워가는 과정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주에서만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서울 본사 방송을 통해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냈을 때도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심의라든지 또 각종 수상 같은 경우도 '어멍의 바당' 같은 경우는 방송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외부적인 평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 주고 응원하고 있는 요새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정책적으로 한 해의 목표를 세울 때 꼭 내년 2022년에는 이런 걸 해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4·3 때가 되면 4·3 방송은 꼭 해야지, 연중으로 환경 부분은 꼭 해야지, 그것과 더불어서 꼭 들어가는 게 제주와 관련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 경쟁력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매년 놓치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지금 인구가 계속 늘었잖아요. 요새 70만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관광객부터 완전 토박이 어르신들까지 제주어를 쓰시는 방법이나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로 투 트랙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물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매깨라' 같은 부분은

초등학생이나 관광객이나 좀 젊은 학생들도 불러 가지고 저희가 퀴즈 형식으로 간단한 어휘라든지 생활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단어 같은 것들을 퀴즈 형식으로 풀게 하면서 조금 기본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드라마라든지 조금 고품격으로 할 수 있는 유에이치디(UHD) 방송으로 해서 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 가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젊은 피디(PD)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더 열심히 이쪽을 해 보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케이비에스(KBS)에서는.

김순자: 우리 현동협 피디(PD)님. 제주어 프로그램 많이 만드셨는데 보람 같은 거 아울러 말씀해 주시죠.

현동협: 예, 보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요제를, '제주어 창작 동요제'를 많이 하니까 그때 이제 뭐 이번에도 1학년 요즘 같은 애들. 여자아이 네 명이 '느영 나영 ᄀᆞ치 가게'라는 노래를 제주어로 부르는데.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밝고 재미있게 부르는데 보는 사람도 이제 같이 웃어지는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제가 받아서 이게 처음에는 동요제가 제주어 동요제가 첫 해 하고 아, 저는 이거 못하겠다 이거 너무 힘들다. 막 항의도 많이 받고, 제주어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못하겠다 했는데 그런 애들이 제주어를 부르면서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또 만들어서 방송을 나가는데 학교에서 많이 따라 부르더

라고요, 애들이. 친구들이. 그거를 보면서 그래서 제주어가 조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좀 부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금이라도 조성할 수 있게 보탬이 되겠구나 그런 바람. 그런 거를 조금 듣는 순간 좀 보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동요제 말고 제주어로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뮤지컬도 만들고 또 제주어로 유명한 애니메이션을 어린이들이, 우리 제주 어린이들이 또 제주어로 더빙을 하는 또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싶고.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재미있게 제주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좀 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제작 프로그램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보람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 봤습니다.

김순자: 옆에 있는 김훈범 피디(PD)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김훈범: 옆에 현동협 피디(PD)님은 어린이들 얘기하셨지만 오히려 어른들을 위해서라도 제주어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주어 프로그램을 만들다, 만들면서 느끼는 거는 소통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시청자들하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주 엠비시(MBC) 최고의 라디오 인기 프로그램 '즐거운 오후 두 시' 순덕이 아방, 순덕이 어멍에 나오는. 제주어로만 진행을 하잖아요. 보면 밭에서 일하다가 막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근데 아무도 긴장을 안 해. 그러니까 제주어로 하니까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끊어 버리고 그냥. 그리고 진짜 부부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상황에 정말 몰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순덕이 어멍, 아방을 만나고 싶다고 구덕에 한라봉을 넣으셔 가지고 막 찾아 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른들한테는 이 제주어를 정말 제라하게 쓰는 이 방송들이 정말 기대를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

제작자 입장에서도 제주어 프로그램은 가성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탁 앉아 가지고 제라하게 제주어를 쓰다 보면 시청자들이 재미있어 해요. 되게 재미있어 하고, 만드는 사람도 재미있고.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 이게 격식

어가 아니어서 나오는 매력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청취자도 전화를 했을 때 표준으로 하라고 했으면 격식을 차려야 되니까 되게 긴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주도 말로 가슴이 '탕탕' 헤 부는 거죠. 가슴이 '탕탕' 헤 불고. 근데 격식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생활어고 일상어기 때문에 자기 늘 쓰시던 말을 편하게 하시니까 방송도 더 활력이 생기고, 생기가 돌고 더 재미도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 저는 그 일상에서 쓰는 제주어가 더 많이 퍼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일상에서는 '야, 무신거 허멘?' 이렇게 제줏말로 막 하다가도 어떤 격식적인 자리가 '무엇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벌써 몸부터 굳어지잖아요. 그게 방송에서도 순덕이 어멍.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들어보면 참 찰지다 하는 요런 생각이 들고 우리 세 피디(PD)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저희 방송에서 제주어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새롭게 나오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가 이제 언어만이 아니라 제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방송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센터에도. 아마 조만간 중앙 방송에서 제주어를 배경으로 한, 제주어를 대사로 한 드라마가 제작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아마 도내 공연하는 요런 단체하고 이제 좀 협약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드라마가 만들어질지 이제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

의 배우 중에 한 명이 출연하시더라고요.

자, 요렇게 하다 보면 제주어가 단순히 교육의 대상이다, 어떤 방송의 대상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언어는 우리가 요즘 말로 힐링 치유의 기능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왼쪽에 우리 이완국 선생님이 제주어 강의하면 막 유튜브(Youtube)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어요. 그냥 말 하나의 웃음이 있는 언어가 또 제주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을 웃기는 비결이 뭔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완국: 웃기는 비결은요, 웃는 것은 그 이 말을 하면 잘 웃어요. 웃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웃는가 보면 내가 골은 말을 이해가는 사람만 웃입니다예. 이해간다는 말은 뜨른 말로 하면 똑똑하다고도 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도 나는 똑똑하고 이해력이 좋다를 보일려면은 그냥 욮사람 웃어가면 웃어 불면 돼예. '너 무사 웃이멘?' 헤 불면은 이해 안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주, 우스갯소리 나온 것들을 이렇게 강의허러 가거나 이러면 제주어로 하는데 제주어로 많이 바꿔서 이렇게 많이 해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예. 두 가시가 사는데 어멍이 옷 상 왕 영 걸어 놔 두면 아방이 이렇게 와 보면 "옷 사시냐?" 허면 "예." 허면 "아이고, 잘 삿저." 헤 불면 뭘 거 아니꽈예. 꼭 톧아예. 뭐렌 톧으느냐 허면 "야, 옷 어떵 저런 거 사시니? ᄒᆞ끔 옷 골르는 안목도 날 ᄒᆞ끔 닮아 보라게." 그럼 어멍이 똑똑허난 바로 대친 말이 "경헤난 나가 이녁 골라수게게." 이거 이해 안 가면 아무도 못 웃입니다예. 경로당 가

면 아무도 안 웃입니다. “무사 웃엄디?” 헙니다예. “경허난 나가 이녁 골라수게.” 이렇게 설명해줘야예. “나가 베리는 안목 엇이난 형편 없는 이녁 골라수게.” 영 골아도 못 웃어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어 교육하러 다니면서 하나 그 저 실제 상황 하나. 퀴즈를 했는데 아이들이 ‘개역’이라는 말을 아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미역으로 알아요. 제가 거기 3회차를 가는데 이건 아니다, 진짜 개역을 골아 봐사켜 헤 가지고 ‘ᄀᆞ레’를 들렁 갈 수 없고 커피 그라인더를 들렁 갔습니다예. 보린 나가 보깡 가고. 겡 거기서 골안에 아이들이 그때 우유 급식을 먹지 말앙 놔두렌 헹 우유에 타 먹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투리들을 야, 이게 어떵 열브냐? 허는가?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개역 골 때 이거를 굵게 갈아야 돼? 이게 잘게 갈아야 돼? 이거를 제주도말로 써 보라니까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어떵 좀질게 ᄀᆞ느냐, 더 홁게 ᄀᆞ느냐?” 헹 이렇게 “좀질게 골아 줍서.” 헌 디만 골아 줘예.

겨고 이제 제주어 연구 학교 가 보면 천정마다 화장실마다 제주어 안 돌아진 디가 없습니다. 다 돌아져예. 그런데 그걸 사진 찍어가서 수업하면서 들어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화장실 앞에 뭐렌 붙여져시냐 허면 그 저 뭐를 물음표(?) 누레 들어갈 때 ᄆᆞ심광 물음표(?) 눵 나올 때 ᄆᆞ심 달른다. 건 뭐 물음표(?)로 썼더라고요. 그걸 찍엉 가서 수업헐 때 화면에 보여줬어요. “이 말 뭔 중 알아졈시냐?” 허니까. 야, 게도 할망이영 사는 아이덜은 압디다예. 그리고 딱 안에 들어강 제가 대변기 안에 들어간 딱 앉앙 문 탁 중강 앉아신

디예, 그 안에 써진 말이 이게 귀덕초등학교 얘기입니다. 강 보면 한 번 들어강 보십시오예. 뭐렌 써져시냐면 화장실 딱 들어가는데 '멕 쓰라, 나온다.'

이거 뭔 말인지 몰라예, 게서. 야, 이거 사진 찍어 가서 보여줬습니다. '멕 쓰라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왜 물어봤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걸어놓은 걸 봠신가 안 봠신가 게도 봅디다예. 걸어 놤시민 보는구나, 들엄시민. 그래서 어떤 아이가 보는가 했더니만 할망이영 사는 아이들은 봥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물어 보니까 어떤 애가 손 들러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손 들어! 그니까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그거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할망 뭐옌 골앗냐면 똥 눌 때이, 힘 주당 보민 나온덴 헌 말이에요. 영 알앙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학교 일선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정말로 크구나. 이래서 이게 초등학교 가서도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막 딱딱한 거보다 아까처럼 어디 가면 이렇게 좀 우스개, 좀 웃어서 기억에 오래 남는 걸 위주로 해 볼려고 많이 허는데 실질적인 거.

그다음에 3회차 갈 때는 뭘 했냐면 아이들이 또 '대죽부레기'를 몰라요. '대죽부레기' 허면은 아, 이게 들어난 아이들은 아는데 그래서 직접 옥수수를 곶단 솖으멍 했습니다예. 게 그 아이들이 물 어느만큼 놔졋어? 그거 제주도말로 해야 이거 나가 골아주마 허믄 "둥가질 정도로만 노라." 허믄 아이들이 이렇게 "자박자박허게 놓으라." 그러면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데. "야, 대죽부레기 둥가질 만이만 노라. 너미 하영 노민이, 밀락밀락허고이 못 먹고 너미 족게 너민 딱딱헹 못 먹는

다.” 하면 이제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실질적인 거 위주로 이렇게. 말이 너무 길었나요?

제로섬게임이 되고 마는 제주어 예산

김순자: 예, 제주어는 생활어인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4시 54분, 50분이 벌써 지나버렸는데 예상 질문. 다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어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요거는 해결할 과제 이런 것도 있지만 예산이 정말 필요하고,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주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나요?

이영림: 일단은 자체 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들엄시민 제주어'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제주어를 듣고 계속 자랄 수 있게 하는 1년에 한 6편 정도씩 어린이용 3편, 청소년용 3편에서 우리 옆에 우리 김성용 교장 선생님도 제작 추진위원으로 같이 들어와 계신데 이렇게 제주학연구센터 감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도청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거의 예전에는 이제 도교육청의 예산 적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은 도교육청의 예산이 더 많은 1년에 한 2억 정도는 '들엄시민 제주어' 애니메이션 개발하는 데 쓰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다 자체 예산으로 장학자료 개발이라든지 제주어 교원 연수,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제주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학교 맞춤형 제주 이해 교육 운영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자: 아, 역시 교육청도 보조금에 의존하시는군요. 자, 우리 앞서서 제주어 교육이 전부 제주도의 교육 보조금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 자료 들엄시민의 애니메이션도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방송 프로그램도 아마 제주도의 보조금으로 그때 공개 모집해서 심사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끔 제가 이런 우리가 설문을 한다거나 이런 정책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저희들한테 주는 과제가 뭐냐면 별도의 제주어 교육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조금이 아니라. 보조금을 획득하면 사업을 할 수 있고 보조금을 획득하지 못하면 그 사업은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예산 확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예산하면은 도에서 예산을 세우지만 그 심의하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어 교육 예산을 별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가요?

오영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에서 의존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서 또 좀 안타깝기도 하고. 특히 제주어 교육 예산인 경우에는 일반 회계에서 제주 교육 예산을 포함시켜 가지고 제주어 교육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주도내에는 한 36개 마을 어르신들이 이제 제주어를 기록하고, 제주어 구술 조사 사업 등 2020년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

지금 마을 어르신들이 최고령으로 들어가면서 향후에 한 10년 이내에서는 이게 채록 확보도 좀 어려운 실정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년 이내는 무엇보다도 이 제주어 관련된 특별 예산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개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좀 예산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 우리 일반 회계에 제주어 예산이 이제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왕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주어 사업, 저희도 센터이기 때문에 예산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학교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방송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예전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하면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받기는 참 쉬워요. 그런데 사업이 딱 끝나면 일몰 사업이라고 해서 그 예산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신규라고 해서 도 예산과에서 잘라내고, 도 예산에서 안 올리면 도의회에서는 또 모르고.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 우리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영희: 네. 이게 지금 일몰 사업은 지원도 안 되고 아까 말씀대로 신규 사업도 승인이 지금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이제 노력과 그다음에 설득을 하고 그래서 행정과 또, 의회와 그다음에 담당 간에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돼서 설득하고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좀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보완하고 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자: 이거는 저희 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어 교육 아니면 일반 우리 제주학을 하는 기관, 단체에서 똑같은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 사업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가 겪어온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 봤고요. 거의 우리가 이 장소를 쓸 수 있는 게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언제까지 할 건지 저희 앞서서 시간들이 많이 지체되어서 궁금해하셨을 텐데 그래도 너무 지나면 안 되고, 앞으로 딱 10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향후 우리 제주어 보존 및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 앞서서 다 얘기는 했지만요,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용 선생님이 먼저 마이크를 다 잡아 주셔서 먼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김성용: 예, 아까는 바람에 대해서 말했는데 보람을 말하고 그다음에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가장 지금 제주어 교육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저가 그 한 10년 동안 제주도교육청 자료 개발에 계속 지금까지 참여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보람이고, 그다음에 제주

책 축제 때 '제주어 알아보게마씸' 이 코너를 운영을 했습니다. 제주어를 익히기 위해서 거기에 그 명사로 된 어휘, 의성어와 의태어, 속담 이런 것들을 한 300장 정도 제주어로 전시해 놓고 그다음에 그 문제지를 이제 네 문제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표준어로 해 가지고 이 표준어를 저쪽에 전시된 곳에 가서 제주어를 찾아서 한번 적어보는, 그래서 그걸 다 맞추면 선물도 드리고 해서. 그때 그 부스 운영할 때 한 40개 부스 중에 우리 부스가 제일 많이 왔습니다. 가장 보람인데 하루에 천오백 명씩 왔으니까 이틀 동안 삼천 명 정도 와 가지고 성황을 이룬 그것이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가 아까 우리 김순자 선생님께서 그 보전, 제주어를 보전,



전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가장 먼저가 이 자료 개발이고. 이 자료 개발을 하면은 이것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재구성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이용하든 아니면 각 교과 틈새 교육 시간을 이용하든 아니면 동아리 활동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하면은 점차적으로 학생들도 그 제주도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제주어를 또 많이 알면은 이 어휘들을 활용해 가지고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집에 가서도 제주어를 배운 것을 부모님한테도 자랑삼아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제주어가 익혀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어 관련 허브를 만들어 결과물과 아카이브 공유할 수 있었으면

김순자: 예, 고맙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 그리고 이제 마무리까지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천호 피디(PD)님.

양천호: 예, 오늘 여기 포럼에 들어오기 전에 1층 기획 전시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행히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자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아까 김성용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개발하셨던 다양한 자료들이라든지 교육청에서 만들었던 들엄시민 같은 그런 좀 좋은 콘텐츠들도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저희 방송이나 혹시 다른 쪽에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후에 저도 한번 관심 깊게 더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 부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보조금은 저희 방송사 3개가 나와 있지만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예요. 한 방송사가 가져가면 나머지 지금 도내 3개 방송사는 그걸 못하는 상황이니까 제로섬(zero-sum) 게임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올해는 저희가 또 드라마 예산을 받아 가지고 좀 미안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또 안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의회나 도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서 좀 파이를 키워주실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 주

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예, 고맙습니다. 우리 레이드맨 선생님 한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정리를 좀 하시죠.

마이클 레이드맨: 그럼 마지막으로는 제가 한 마디 하려면은 저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일단 제주어가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최근 몇 년에, 몇 년 동안 촬영하러 나갔는데 조금만 마을에 가서 나이 드신 분들이랑 만나고 인터뷰나 그런 거 받고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요기 진짜 제주의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다른 조선시대 티비(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 그냥 막 약간 어미, 조금 틀린 억양이 조금 틀린 표준어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여기 제주어, 제주어로 촬영한 드라마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진짜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1부 했을 때는 말한 것처럼 저기 제주어 그리고 제주 역사 하나 있죠. 엄청 무겁게 있는데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주어, 제주 역사 살리면서 제주어도 살릴 수 있으면 진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제주에 와서 볼 때는 제일 뿌듯뿌듯한 느낌, 경우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제주어로. (웃음)

김순자: 우리 외국인들도 배우는 제주어, 제주사람들이 안 배우면 뭐 쿠과예? 잘 배워지지 않을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장학사님, 정리를 하면요.

이영림: 제주어 보전 및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기 앞에 청중석에 우리 은사님도 계십니다마는 사실 자랄 때는 집에서는 들었지만 우리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제주어를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교대를 갔을 때 제가 국어 교육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우리 고재환 교수님께 제주어에 대해서 좀 배웠고, 이제 그 기반이 돼 가지고 제가 현장에 교사가 되어서 나가서 지금 우리 김성용 교장 선생님은 10년 넘게 제주어 교육 자료를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한 5년 정도 자료 개발에 참여하면서 좀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 지금 제주어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대 사대 교원 양성 과정에도 제주어 교육이 정규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주어 교원 연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이번에 최근에 저희들 제주어 교육 연수를 할 때 우리 제주학연구센터랑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에서 이제 강사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그런 강사풀 구축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교육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든 제주어 자료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제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유관기관과 같이 이렇게 지역과 함께 하는 제주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자료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마이클 선생님도 외국인이시지만 제주어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싶

습니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제주어를 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제주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주어 유관기관들이 계속 모여서 저희들이 제주어 교육 정책에 대한 자문도 해 주시고 하면서 조금이나마 좀 더디긴 하지만 이제 제주어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순자: 네, 이번엔 멀리 우리 현동협 선생님. 마무리하는 발언 같이 해 주시죠.

현동협: 여기 오기 전에는 그냥 저는 뭐 제주어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제주어 창작 동요제'랑 제주어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실제 저도 제주어를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도 좀 많이 반성을 했었고. 그래서 제주어를 발전시키는 거는 물론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제주어를 쓰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부터 그리고 제 주변에서부터 제주어를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반성을 다시 한 번 해봤고. 제가 제주어를 하면서 제작을 하면서 어렵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 제주어 전문 기관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직접 가서 찾아뵙고 도움도 많이 요청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여기 이제 오늘 참석해 보니까 그 부분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많이 서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와줘서 좀 제주어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김순자: 김훈범 피디(PD)님.

김훈범: 아까 양천호 피디(PD)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오늘 다양한 단체들에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요. 되게 처음 안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주어 관련한 좀 포탈(Portal)이랄까 허브(Hub)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각 자체들이 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활동 그리고 결과물 그리고 아카이브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하면 저는 콘텐츠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날로 먹으려는 수작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주도 위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한 10년 사이에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변했는데 제주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언어에서 이제는 제주적인 콘텐츠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하지 않았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제주어의 위상도 함께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진짜 마지막 끝으로 방송 제작 사업에 각 방송사 골고루 나눠 주시면 제주어만큼 서로 콘텐츠적인 경쟁을 하면서 상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이런 장이 열리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김순자: 자, 이완국 선생님도 한 말씀 마무리하시죠.



이완국: 예, 이게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연구하고 책상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쓰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아까 제주어보전회라든지 제주어연구소 이런 데에서 연수를 하는데 일반인 대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대상으로 직무연수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연수, 선생님들이 1년에 몇 시간 받아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무 연수 차원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 아이들하고 제일 많이 지내는 게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허고 말을 이렇게 귀가 열리도록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교육 가서 제가 제주말을 이

렇게 하면 정말로 선생님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수,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우리 늘 쓰듯이 아까 밥상머리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쓸 수 있게 직무 연수 같은 거를 해 주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참여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순자: 네, 직무 연수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오영희 의원님.

오영희: 오늘 제주어,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환경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환경 조성이 되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주어 해설사 양성도 또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노동요, 노동요라든가 제주 신화를 통해서 제주어를 좀 확대시키는 또 이제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지금 제주 이제, 공공 관광지 그 어느 한 지역에는 꼭 그 해설사를 통해서 제주어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 그런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환경의 일부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순자: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어 포럼. 저희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어 연구 기관, 단체, 활동가들을 모시고 제주어 포럼을 하는 이유가 오늘 여러 선생님들의 이야기 속에 나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주어 포럼, '제주어로 통ᄒᆞ다' 우리가 이제 제주어 관련 기

관 연구자. 아니면은 활동가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다는 우리 소멸 위기의 언어 제주어를 잘 지키고 보존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은 혼자가 해서는 더딜 수밖에 없다 오늘 이렇게 모인 거는, 앞으로도 이런 협업 관계를 통해서 더 나은 제주어 문화를 우리가 같이 창출하고 그걸 더 널리 퍼지게 하자는 데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장시간 저희 제주어 포럼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 좌담회에 참석해 준 여덟 분 너무 고맙수다. 앞으로도 내년 '제3회 제주어 포럼'을 위해서 다시 1년 동안 저희들이 담금질을 잘해서 내년에는 정말 제주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도 빨리 물러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학연구센터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예.

다글다글 과랑과랑 덩싹덩싹
덩싹덩싹 다글다글
무큰 어랑어랑
덩싹덩싹

3

제주어 자료전

‘제주어를 펴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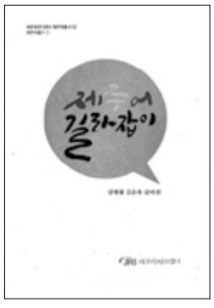
행사 기록

3.1. 참여 기관 및 전시 자료 소개

제주학연구센터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제주학연구센터는 2011년 8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의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 연구 및 연구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 연구 기관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깃든 제주어를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제주어 조사·연구 사업, 대중화 사업, 제주어 대사전 편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억 속의 언어를 현실 언어로 바꾸는 조사·연구, 일상언어화 실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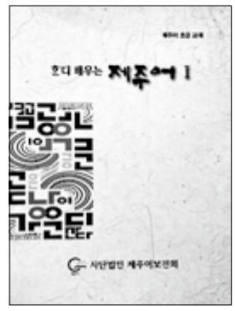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는 2008년 1월 25일 창립 총회를 시작으로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 규정에 따라 제주지역의 역사·문화를 계승시켜 향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주어 보전 및 전승을 위한 사업, 제주어의 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도 내외 교류 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는 제주어 기본 교육, 제주어 심화 교육, 제주어 청소년 교육, 초등 방문 제주어 교육 등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제주어 골을락 대회', 제주어 홍보지 『덩드렁마께』 발간 사업, 제주어 생활 수기 공모 사업, 제주어 교재 『혼디 배우는 제주어』 발간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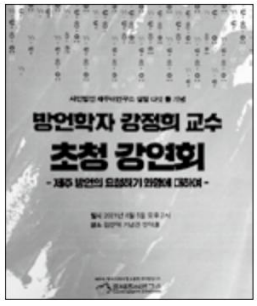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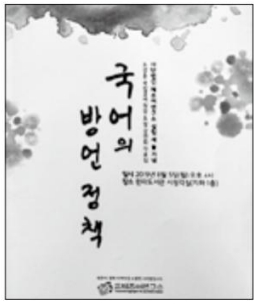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corporation aggregate The Jeju Dialect Institute

(사)제주어연구소는 2016년 8월 5일 제주어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국제적인 교류를 통하여 제주어를 보전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제주어연구소는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라는 신조로 제주어 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 제주어 시민 강좌, 제주어 총서 및 기관지 발간, 제주어 구술자료 구축, 제주어 학술회의 개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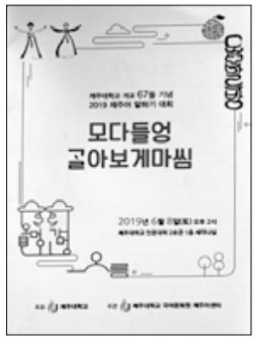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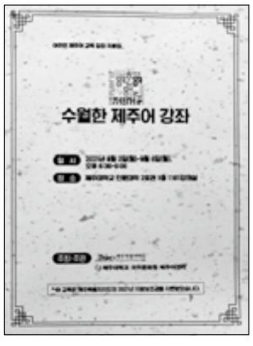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은 전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적인 상담·연구 기관입니다.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은 제주어 전승과 보존에도 앞장서서 제주도민이 올바른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주어 말하기 대회', '청소년, 이주민, 결혼이민자, 제주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 제주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어와 제주문화 관련 학술대회' 개최, '제주어 구술 자료 총서' 발간 등으로 제주어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리고, 제주어를 널리 전승·보존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어 정책 및 제주어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노력을 기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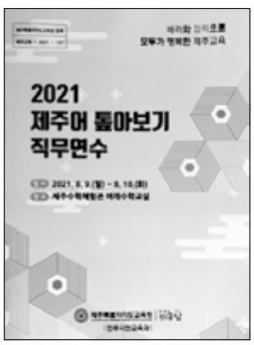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세계가 ᄉᆞ랑ᄒᆞ는 제주어, ᄒᆞᆫ디 배우곡 ᄒᆞᆫ디 쓰멍 직ᄒᆞ게마씀'을 비전으로 교육과정 연계 제주어 교육 활성화 및 일상생활에서 제주어 사용 기회 확대를 통한 제주어 전승 보전 및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어 교육 활성화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한 제주어 교육, 제주어 동아리 운영 학교 지원, 제주어 교육 자료 개발·보급, 제주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연수, 지역과 연계한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어교육연구회

제주어교육연구회는 제주어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제주어 교육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원 연구회입니다. 학교현장에서 제주어의 원활한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멸 위기의 제주어를 보존·계승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으며, '제주어 골든벨 대회' 개최, 제주어 학습자료 보급, 제주어 교육자료 개발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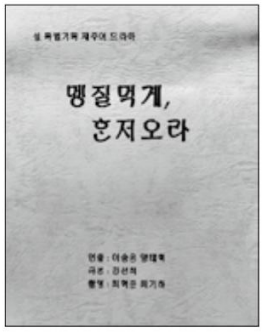
KBS 제주방송총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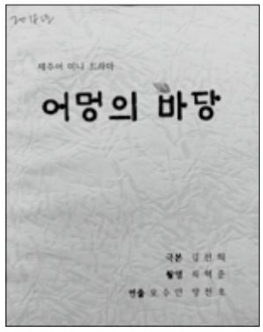
KBS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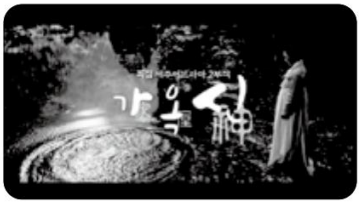
KBS 제주방송총국은 올해 개국 71주년을 맞은 제주의 대표 공영방송사입니다. KBS 제주방송총국에서는 제주어 보전 및 확산을 위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보물섬〉 및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어 드라마 20분물 기준 250여 편을 제작하였고 50분물 기준으로는 4편을 추가로 제작했습니다. 올해도 10월 12일부터 매주 한 편씩 〈우리가 몰랐던 제주인〉 4부작을 방송 예정이며 3월부터 제주어 퀴즈쇼 〈매일 매일 깨우쳐라, 매깨라〉를 20여 편 제작 방송 중입니다. KBS 제주방송총국에서는 앞으로도 제주어 보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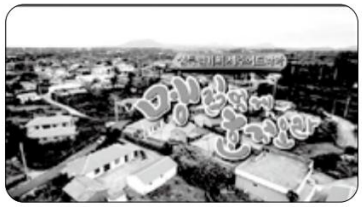














제주M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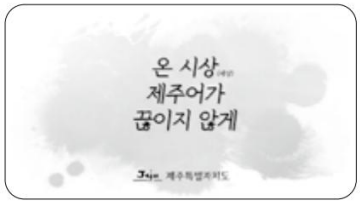
제주 M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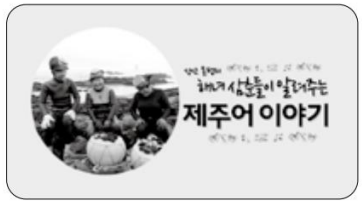
제주문화방송(제주MBC)은 1968년 개국 이래 제주지역을 대표해 온 지역 공영방송사입니다. 제주문화방송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정서를 담는 그릇인 제주어 보존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마을 프로그램 〈열린다큐 우리동네〉, 〈우리동네 차차차〉, 〈제주어 전승 프로젝트 속암수다〉 등을 제작하며, 제주도민의 희로애락을 제주어로 담아낸 것은 물론, 2000년부터는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를 통해, 청취자들과 제주어로 뜨겁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창사특집 TV 다큐멘터리 〈제주어의 지꺼진 반란〉을 제작·방송하였습니다. 특집 다큐멘터리뿐 아니라 정규 프로그램에서도 제주어 보존과 활용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5분에 방송되는 〈와랑와랑TV〉에서는 '우리동네 말장시' 코너를 통해 한주간의 시사와 트랜드 등을 제주어 대화로 재미있고 친근하게 풀어내어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를 제주답게 만드는 길은 제주어 보존과 활용입니다. 그 길에 제주문화방송이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KCTV제주방송

KCTV제주방송은 방송·통신 융합을 선도하는 방송사로서 1995년 개국하였습니다. 빠르고 상세한 뉴스와 지역 밀착 프로그램, 그리고 날씨와 항공운항 정보, 경조사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정보 제공을 통해 내 고장 우리 미디어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어와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삼춘 어디 감수과〉, 〈제주어 탐구생활, 벌테시대〉, 〈제주어 뉴스〉, 〈제주어 창작 동요제〉 등 다양한 제주어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소멸위기 언어이자 제주인의 정체성인 제주어를 살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2015년 9월 창단한 '제주어로 노래하는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은 제주의 어린이들이 제주의 문화와 이야기를 제주의 아름다운 언어로 노래하는 세계 유일의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국내·외 행사 초청으로 2016년 제주포럼 제주어 합창 연주, 2017~2018년 오사카·도쿄에서 제주4·3희생자들과 재일 제주 어르신들을 위한 위문 공연, 2019년 UN이 선포한 세계 토착어의 해를 맞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관에서 합창 연주를 했습니다. 2021년 6월에는 '제라진 제주어TV' 유튜브 방송 채널을 개국하여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주어 노래와 콘텐츠를 활발히 홍보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독일과의 교류 연주가 계획되어 있어 어린이 문화 사절단으로서도 제주어를 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제주어 어린이 뮤지컬 '오늘 해원 덩삭헴쩌(오늘 하루 행복했어)' 등 제주어를 활용한 창작 작품들을 제작하여 제주문화를 노래로 알리며 미래를 위해 제주어와 제주문화를 보존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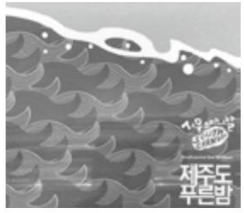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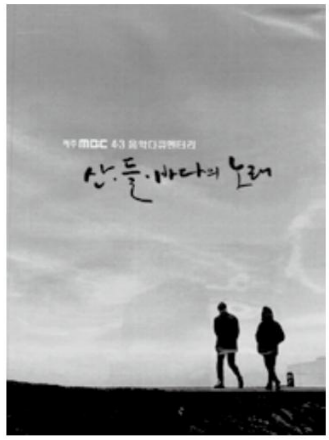


사우스카니발

2009년 제주도에서 결성된 10인조 스카밴드 사우스 카니발(South Carnival)은 음악의 불모지라 여겨지는 제주도에서, 따스하고 평화로운 제주도의 정서를 담아낸 한국형 자메이카 스카와 라틴 음악을 포함한 섬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으쨔으쨔' 2박과 4박, 뒷박에 힘을 실어 흥겨움을 일으키는 자메이카 음악, '스카(Ska)'는 한국의 흥과 가장 닮아있는 장르이며, 1950년대 영국의 식민지에서 해방의 기쁨을 맞은 자메이카는 그 정서적으로도 한국의 정서와 교집합을 이룹니다. 거기에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이 낳은 '따뜻하고 여유로운 정서'를 담아 연주되는 사우스 카니발(South Carnival)의 스카(Ska)는 '한국형 스카'로 재탄생되어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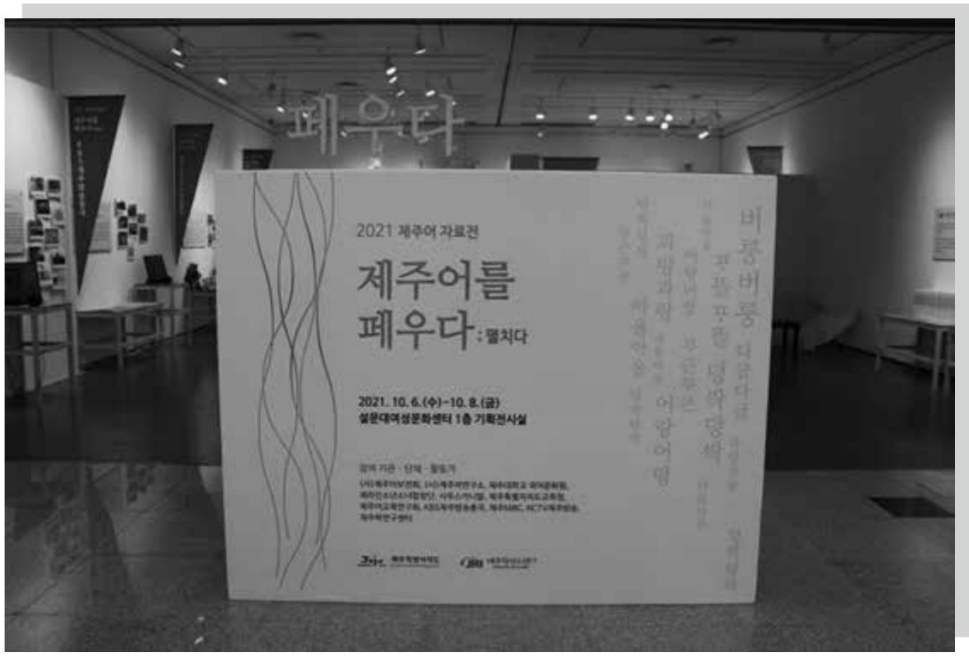








3.2. 사진으로 보는 제주어 자료전



제주어 자료전 전시장 입구



제주어 자료전 전경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



사우스카니발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KCTV제주방송



KBS제주방송총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MBC



(사)제주어보전회



(사)제주어연구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어교육연구회



제주어 자료전 내부 전경



제주어 자료전 내부 전경



◀ 제주어 자료전 안내



제주어 자료전 관람 ▶

4

기타 행사 관련 기록

2021 제주어 포럼 '눌' 초대장







2021 제주어 자료전 '제주어를 페우다' 리플릿





기념품-2022 제주어 공책 '눌'





언론 보도 자료 및 포털 사이트 게시글 등

매체명	날짜	보도 자료 제목
제주레저신문	2021. 9. 28.	2021 제주어 포럼 '눌' http://www.leisur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87
시사종합신문	2021. 9. 28.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 포럼 '눌'-페우곡, ᄂᆞ누곡, 통ᄒᆞᆫ곡! 개최-11개 기관·단체의 제주어 자료를 모아 자료전도 진행 http://m.sisatotalnews.com/article.php?aid=16328082221338840005#_enliple
뉴스N제주	2021. 9. 28.	제주학연구센터, 2021 제주어 포럼 '눌' 페우곡, ᄂᆞ누곡, 통ᄒᆞᆫ곡! http://www.news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03
뉴제주일보	2021. 9. 29.	10주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 포럼 '눌' 참여자 모집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70826
포털 사이트명	**날짜**	**글 제목**
제주시청 공식 블로그 (Naver blog)	2021. 10. 12.	2021 제주어 자료전-제주어를 페우다[; 펼치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owjejusi&logNo=222534662141&navType=by

언론 보도 자료

2021년 9월 28일(화), 제주레저신문

2021 제주어 포럼 '눌'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어 포럼 '눌'-페우곡, ᄂᆞ누곡, 통ᄒᆞ곡!〉을 10월 6일 오후 2시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학계, 문화·예술, 언론 등에서 제주어 관련 연구하는 사람들과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제주어 보전과 전승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지난해 12월 8일 제주어가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로 등록된 10주년을 기억하는 행사로 시작해 매해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어 포럼 '눌' 1부 '제주어로 ᄂᆞ누다'는 제주어 교육과 문화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나누는 자리다. 2부 '제주어로 통ᄒᆞ다'는 제주어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한다.

1부는 권미소(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의 사회로 김정숙((사)제주어보전회 사무국장), 김보향((사)제주어연구소 이사), 배영환(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장), 이애리(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장), 강경환(사우스카니발 리더) 씨가 발표한다.

2부는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가 좌장을 맡아 오영희(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림(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김성용(귀일중학교장, 제주어교육연구회장), 양천호(KBS제주방송총국 PD), 김훈범(제주

MBC PD), 현동협(KCTV제주방송 PD), 이완국(전 더럭분교장), 마이클 레이드맨(릴스틸프로덕션 대표) 씨가 참석한다.

부대 행사로 제주어 연구 자료, 활동 자료 등을 전시하는 '제주어 자료전-제주어를 펴우다'도 개최한다.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11개 기관과 단체가 그동안 해왔던 제주어 연구 자료, 활동 자료 등을 전시한다.

권미소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은 "제주어 연구자, 활동가 등이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제주어 보전과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64-726-9154

2021년 9월 28일(화), 시사종합신문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 포럼 '눌' – 페우곡, ᄂᆞ누곡, 통ᄒᆞ곡! 개최

- 11개 기관·단체의 제주어 자료를 모아 자료전도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순자)에서는 〈제주어 포럼 '눌'－페우곡, ᄂᆞ누곡, 통ᄒᆞ곡!〉을 오는 10월 6일(수) 오후 2시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제주어 관련 학계, 문화·예술, 언론 등에서 제주어 관련 연구·활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주어 활동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기획된 것이다.

지난해 제주어가 유네스코 소멸 위기 언어로 등록된 10주년을 기억하는 행사(2020. 12. 8.)에서부터 시작하여 매해 제주학 주간(10월 둘째주)과 제주어 주간(10월 첫 번째 금요일부터 일주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어 포럼 '눌' 1부 '제주어로 ᄂᆞ누다'는 제주어 교육 및 문화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나누는 자리, 2부 '제주어로 통ᄒᆞ다'는 제주어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1부는 권미소(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의 사회로 김정숙((사)제주어보전회 사무국장), 김보향((사)제주어연구소 이사), 배영환(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장), 이애

리(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장), 강경환(사우스카니발 리더) 씨가 발표를 하고, 2부는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가 좌장을 맡아 오영희(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림(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김성용(귀일중학교장, 제주어교육연구회장), 양천호(KBS제주방송총국 PD), 김훈범(제주MBC PD), 현동협(KCTV제주방송 PD), 이완국(전 더럭분교장), 마이클 레이드맨(릴스틸프로덕션 대표) 씨 등이 자리를 빛낸다.

부대 행사로 제주어 연구 자료, 활동 자료 등을 한데 펼쳐 전시하는 '제주어 자료전-제주어를 펴우다'도 개최한다. 이 자료전은 10월 6일(수)부터 10월 8일(금)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11개 기관과 단체가 그동안 해왔던 제주어 연구 자료, 활동 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학연구센터 권미소 전문연구원은 "이번 행사가 제주어 연구자, 활동가 등이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마음이 통하며, 제주어 보전과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어 포럼 '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선착순 15명에 한해 10월 1일(금)까지 사전 접수를 받고 진행한다.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http://www.jst.re.kr)을 참조하면 된다.

2021년 9월 28일(화), 뉴스N뉴스

제주학연구센터, 2021 제주어 포럼 '눌' – 페우곡, ᄂᆞ누곡, 통ᄒᆞ곡!

11개 기관·단체의 제주어 자료를 모아 자료전도 진행

제주어 포럼 '눌'-페우곡, ᄂᆞ누곡, 통ᄒᆞ곡!:

10월 6일(수), 14:00~/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

부대행사 제주어 자료전-제주어를 페우다:

10월 6일(수)~10월 9일(금), 10:00~17:00/설문대여성문화센터 1층 기획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순자)는 제주어 포럼 '눌'–페우곡, ᄂᆞ누곡, 통ᄒᆞ곡!을 오는 10월 6일(수) 오후 2시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행사는 제주어 관련 학계, 문화·예술, 언론 등에서 제주어 관련 연구·활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주어 활동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기획된 것이다. 지난해 제주어가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로 등록된 10주년을 기억하는 행사(2020. 12. 8.)에서부터 시작하여 매해 제주학 주간(10월 둘째주)과 제주어 주간(10월 첫 번째 금요일부터 일주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어 포럼 '눌' 1부 '제주어로 ᄂᆞ누다'는 제주어 교육 및 문화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나누는 자리, 2부 '제주어로 통ᄒᆞ다'는 제주어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1부는 권미소(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의 사회로 김정숙((사)제주어보전회 사무국장), 김보향((사)제주어연구소 이사), 배영환(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장), 이애리(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장), 강경환(사우스카니발 리더) 씨가 발표를 하고, 2부는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가 좌장을 맡아 오영희(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림(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김성용(귀일중학교장, 제주어교육연구회장), 양천호(KBS제주방송총국 PD), 김훈범(제주MBC PD), 현동협(KCTV제주방송 PD), 이완국(전 더럭분교장), 마이클 레이드맨(릴스틸프로덕션 대표) 씨 등이 자리를 빛낸다.

부대 행사로 제주어 연구 자료, 활동 자료 등을 한데 펼쳐 전시하는 '제주어 자료전-제주어를 펴우다'도 개최한다. 이 자료전은 10월 6일(수)부터 10월 8일(금)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11개 기관과 단체가 그동안 해왔던 제주어 연구 자료, 활동 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학연구센터 권미소 전문연구원은 "이번 행사가 제주어 연구자, 활동가 등이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마음이 통하며, 제주어 보전과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어 포럼 '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선착순 15명에 한해 10월 1일(금)까지 사전 접수를 받고 진행한다.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http://www.jst.re.kr)을 참조하면 된다.

2021년 9월 29일(화), 뉴제주일보

10주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 포럼 '눌' 참여자 모집

제주어 포럼 눌 참여자 모집 10월 1일까지
본 행사는 10월 6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순자)는 10월 1일까지 '제주어 포럼 눌: 페우곡, ᄂᆞ누곡, 통ᄒᆞ곡!' 참여자를 모집한다.
행사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개최되는데, 제주어 관련 학계, 문화예술, 언론 등에서 제주어 관련 연구와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주어 활동 상황을 공유한다.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도 마련됐다.
제주어 포럼 '눌' 1부 '제주어로 ᄂᆞ누다'는 제주어 교육 및 문화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나누는 자리, 2부 '제주어로 통ᄒᆞ다'는 제주어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제주어 포럼 '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선착순 15명에 한해 10월 1일까지 사전 접수를 받고 진행한다.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www.jst.re.kr)을 참조하면 된다.

행사 사진



등록 및 발열 확인



등록 및 발열 확인



개회식 국민의례



개회식 사회(김미진)



개회식 인사말(김순자)



개회식 격려사(김상협)



개회식 축사(고춘화)



개회식 축사(오영희)



제1부 '제주어로 ᄂᆞ누다' 사회(권미소)



제1부 '제주어로 ᄂᆞ누다' 발표(김정숙)



제1부 '제주어로 ᄂᆞ누다' 발표(김보향)



제1부 '제주어로 ᄂᆞ누다' 발표(배영환)



제1부 '제주어로 ᄂᆞ누다' 발표(이애리)



제1부 '제주어로 ᄂᆞ누다' 발표(강경환)



제주어 포럼 '눌' 객석



제주어 포럼 '눌' 객석



제2부 '제주어로 통ᄒᆞ다' 좌담회



제2부 '제주어로 통ᄒᆞ다' 좌담회



제2부 '제주어로 통ᄒᆞ다' 좌담회



제2부 '제주어로 통ᄒᆞ다' 좌담회



제2부 '제주어로 통ᄒᆞ다' 좌담회



제2부 '제주어로 통ᄒᆞ다' 좌담회



◀ 제주어 포럼 '눌' 단체 사진

제주어 포럼 '눌'–페우곡, ᄂᆞ누곡, 통ᄒᆞ곡 행사 기록

발행일 2021년 12월 21일
발행인 김순자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전화 064-726-9154 모사전송 064-747-6140
누리집 http://www.jst.re.kr

발간등록번호 11-B553921-000011-01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비매품

버룽버룽 다글다글 과랑과랑 덩싹덩싹 다글다글 무큰무큰 어랑어랑 아올아올 덩싹덩싹 과랑과랑 버룽버룽 어랑어랑 무큰무큰

표·뜰표·뜰